


 법무부 교정본부


9 772671 930009
ISSN 2671-9304



 법무부 교정본부

COVER STORY



헌신의 이름 앞에서

서울남부교도소 청년 교도관들의 6월

서울남부교정시설 총흔탐에는 6·25 전쟁 당시 순직한 교도관 167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포화와 화마에도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킨 이들의 얼굴을 생각합니다. 2026년 6월 서울남부교도소의 젊은 교도관들이 총흔탐 앞에 섰습니다. 나상현 교사, 성철 교도, 김진배·김태연 교사. 과거의 헌신을 잇는 오늘의 이름들입니다.

교정 풍경	02
교정사의 눈	08
교정직필	12
스마트 교정	14

職터뷰	18
나이스 투 및 유	22
만나다, 잇다	26
교정Toon	28
슬기로운 교정생활	30

로컬의 취향	32
일상력연구소	36
라이프 2.0	40
나의 마음은	42

교정본부 뉴스	44
교정기관 오늘	48
칭찬마당	52

Contents

생각을 잇다

서울남부교도소 한가운데, '시작'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02
그대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08
헌신할 대상을 가진 사람은 길을 잃지 않는다	12
수용자 권리와 교정공무원의 일 환경 사이	14

마음을 잇다

“You go! We go!” 대구교도소 정청열 CRPT 팀장이 구호에 새긴 진심	18
경북북부제2교도소 중범죄자 수용동 5인방을 만나다	22
서울남부구치소가 반부패·청렴 문화에 스며든 날!	26
다시 내린 뿌리	28
당신의 심포는 어떤 풍경인가요?	30

일상을 잇다

여행자는 잘 모르는, 전주 사람의 1박 2일 코스	32
올여름에 해외여행 갈 수 있을까? (feat. 환율)	36
진짜 인맥은 '양'이 아니라 '두께'다	40
나는 왜 불안할까?	42

소식을 잇다

교정본부 주요 소식	44
전국 교정기관 소식	48
모범공무원 선정을 축하합니다!	52

발행인 이훈연 법무부 교정본부장
발행일 2026년 6월 9일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홈페이지 www.corrections.go.kr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교도소 한가운데, ‘시작’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서울남부교도소는 유일하게 서울 안에 있는
기결수 수용 시설이다. 건강한 사회 복귀에
선명한 가능성을 부여하겠다는 의지가
그 첫 번째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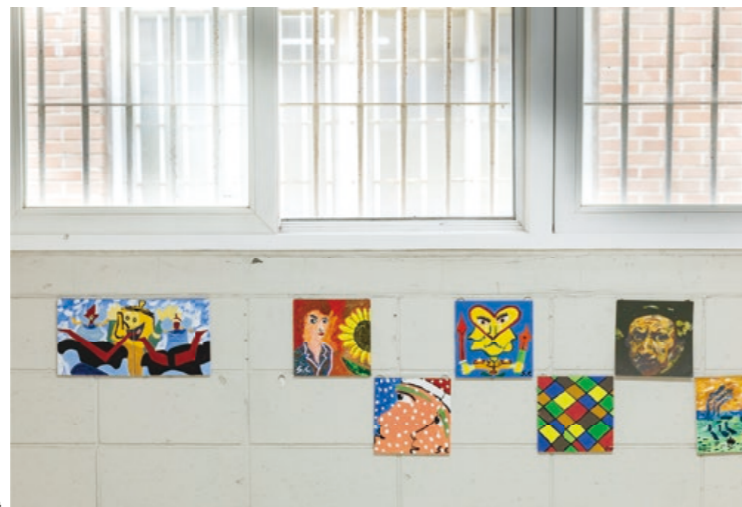
- 1 “국가 비상상황 시에 저희는 반드시 제자리를 지켜야 해요” 순직 교도관 167명의 영령을 모신 총훈탑, 참배를 마친 두 젊은 교도관은 묵묵한 내일을 생각했다.
- 2 서울남부교도소에는 전신인 영등포교도소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교정’이라는 단단한 두 글자가 새겨진 비석도 그 중 하나다. 어제가 오늘에 물려준 사랑.



3



5



4

- 3 “죄와 사람을 분리하려고 노력합니다.” 교정과 간호가 동시에 이뤄지는 혈액투석실, 4인방의 마음은 짝이낸 듯 같았다. 박현아 간호사기, 천성원 교위, 김기태 간호주사보, 현승기 교도
- 4 보안과 주복도, 수용자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타일 장식 위로 햇살이 내려앉았다.
- 5 서울남부교도소 외곽에 있는 은행나무는 구로구 보호수 두 그루 가운데 하나다. 추정 연령은 300살, 수용동과 그 너머의 주거 지역을 굽어보고 있다.
- 6 직원과 주민, 모두의 것인 테니스장. 초여름 초록이 한창이다.



6



7

2026년 제1회 검정고시에서 전국 47개 교정기관 수용자 총 249명과 소년원 학생 총 187명이 최종 합격했다. 특히 서울남부교도소에 소재한 소년 수형자 교육시설 '만델라 소년학교'에서는 응시자 26명 전원이 합격했다. 2024년 제1회 검정고시 이래 5회 연속 전원 합격, 누적 합격자는 130명이다.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이름을 딴 이 학교는 2023년 문을 열었다.

서울남부교도소는 유일하게 서울에 위치한 기결수 수용시설이다. TV 예능 촬영지가 될 정도로 국민에게 친숙하고, 우리나라를 방문한 해외 사절이 가장 자주 찾는 교정시설이기도 하다. '접근성'은 필연적으로 풍부한 인프라를 동반한다. 그리고 인프라는 무한한 가능성의 기반이 된다. "저희 소가 테스트 베드라고 생각해요. 긍정적인 의미에서요." 총무과 나상현 교사가 소개한 서울남부교도소의 방향성 또한 가능성을 향하고 있었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만델라 소년학교 정문 앞, 쇠창살 너머 넬슨 만델라의 말이 방문자를 맞이했다. 김천소년교도소와 달리 이곳의 공식 명칭은 '학교'로 끝난다. '주임님' 대신 '선생님'이라 부르고 수형번호 대신 이름을 부르는 교정시설에서, 소년범들은 생애 처음 진지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 서울대학교 대학원생들이 이끄는 독서 토론이 있어요. 디베이트 수업을 처음 경험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수학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김병곤 교도는 2021년 입직해 2년 전 만델라 소년학교 근무를 지원했다. 함께 일하는 '교도관 선생님'들도 각각 국어, 영어, 과학, 체육 과목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담장 밖 학교에서는 느낄 수 없는 교사로서의 기쁨, 경험하지 않은 이가 짐작하기는 어려웠다.

"원하는 대로 교정공무원이 됐지만 교화의 가치에 동의할 수 없는 순간도 많았어요. 과연 이 사람이 변할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은 믿어요."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소년범이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출소 후 재수 중이라는 소식을 적은 편지가 종종 날아온다. "아직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희망적이지요. 나쁜 길로 다시 빠지지 않겠다는 증거이니깐요." 언제 끊어질지 모를 실낱 같은 희망을 놓지 않는 것, 만델라 소년학교에서 2년을 보낸 후 김병곤 교도가 깨달은 교화의 길이다.

서울남부교도소는 직업훈련 거점 시설이기도 하다. 웹툰 콘텐츠 교육장에 들어서자 푸른 수의를 입은 십여 명의 뒷모습이 보였다. 태블릿PC 화면 앞에서 손에 든 전자 펜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8

9



0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시작한 웹툰 콘텐츠 과정은 민들레 홀씨가 되어 화성직업훈련소에도 안착했다. 수형자들은 일주일에 세 번 6시간씩 6개월 동안 교육받은 후 바로 옆 웹툰 스튜디오로 자리를 옮긴다. 이 시간은 수형자들의 출소 후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이전에는 용접이나 한식 조리 같은 전통적인 과목이 주를 이뤘어요. 하지만 세상이 변했고 수형자들이 살고 싶은 삶의 모습 또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인섭 직업훈련실장이 소개한 웹툰 스튜디오의 성과는 결코 만만치 않다. "국내 최대 규모 웹툰 플랫폼에 연재하는 작품의 일부가 이곳에서 그려졌어요. 최근에는 공모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대상 격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비롯해서 여러 번 상을 받았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수상 이력이 고스란히 그들의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 출소 후 웹툰 작업으로 월 500만 원 이상 수입을 올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편견 없이 대하는 것이요." 혈액 투석실에서 만난 현승기 교도에게 일하는 마음을 묻고 들은 답이다. 그를 포함해 서울남부교도소 혈액 투석실에서 근무하는 네 사람의 직무는 '간호'이다. 일주일에 세 번 이곳을 찾는 신장 질환자들의 차트에는 수용 전 그들이 저지른 죄명이 적혀 있다. 환자용 침대에 누운 수용자를 치료하는 시간, 네 사람에게 찾아오는 감정이 궁금해졌다. "죄와 사람을 분리하려고 노력합니다." 천성원 교위의 짧은 답변에 한꺼번에 깨달음이 몰려왔다. 교정공무원이 가장 나중까지 지켜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 "헌신"이라는 언뜻 와닿지 않는 가치는 결국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수용에서 삶으로, 그 가능성을 찾는 매일 또한 그러하다.

서울남부교도소 초입 충혼탑에는 6·25 전쟁 당시 순직한 교도관 167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첫 번째 이름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재소자들과 함께 끝까지 항전한 후 포로로 잡히지 않기 위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우학중 전 개성소년형무소장이다. 향년 45세.

글 정평화 사진 이용기



10

- 7 학생들이 직접 만든 크리스마스 장식이 붙어 있는 6월의 교실. 그 외에는 어느 교실과 다르지 않은 풍경이다.
- 8 태블릿 PC 위를 오가는 능숙한 손길, 직업훈련과 이정재 교위는 "출소 후 웹툰 작가의 삶을 이어가는 수용자가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 9 이곳에서 일주일에 세 번 하루 6시간씩 6개월간 교육받은 수용자들은 웹툰 스튜디오로 이동해 외주 작업과 공모전 준비를 한다.
- 10, 11 서울남부교도소가 새로 도입한 직업훈련 과정의 공통점은 '미래'에 있다. 학점은행제를 시행해 자격증과 학위 취득으로 이어낼 수 있는 패션 비즈니스 과정 교실, 저 너머에서 익힌 브랜딩과 창업 지식은 출소 후 삶이 된다.



11



그대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우리 결의국가유공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더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기 불황과 국제적 위기로 인한 고물가는 서민의 삶을 짓누르고, 청년들은 취업난 속에 꿈을 접으며, 중년의 가장들은 갑작스러운 퇴직 앞에 암울한 미래를 마주합니다. 결식아동의 아픔과 사회적 소외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많다는 통계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내면의 처지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 잘못은 상황 탓으로 돌리고 타인의 실수에는 엄격한 자기중심적 사고, 집단 간 갈등과 세대 간 불화, 비난이 앞서서 불신 풍조가 우리 사회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관심과 갈등이 결국 많은 이들을 고립시키고, 조국을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서로를 보듬으며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 세계 10위권이라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은 앞서 간 순국선열과 호국용사, 그리고 기성세대의 피땀 어린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국의 광복을 위해 산야에서 스러진 애국선열들,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 그리고 독재에 항거해 민주주의의 토대를 닦은 민주유공자들의 공헌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합니다. 또 먼 타국 땅의 탄광과 공장, 뜨거운 사막에서 땀 흘린 이들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풍요와 IT 강국의 위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위기 때마다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의 '금모으기 운동'과 2002년 월드컵 과정에서 보여준 단결력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는 늘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고, 그 순간마다 빛나는 공동체 의식을 발휘했습니다. 앞선 세대의 고귀한 헌신과 뜨거운 마음은 우리 안에 면면히 흐르고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 일어나 더 살맛 나는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교도관은 엄정한 복무 기강과 청렴한 자세로
 범질서를 수호하며, 끊임없는 인격 도야를
 통해 교정행정을 발전시키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헌신은 국가의 안전과 사회 질서 유지에
 필수적이며, 그 가치는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궤를 같이합니다.

제복의 무게, 더 큰 예우가 필요하다

지난 한 세기, 우리는 영예와 치욕을 함께 겪었습니다. 항일 투쟁의 설움
 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딛고 일어난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
 러운 국가에서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해
 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묵묵히 소임을 다하다 산화하신 순직 교
 도관들의 영령 앞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역사를 잇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세계 선진국들은 국가를 위해 헌
 신한 이들을 기억하고 그에 걸맞은 예우를 다함으로써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하여 그 숭고
 한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 대민(對民) 제복 공무원에 비해 교도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예우는
 여전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교도관은 엄정한 복무 기강과 청렴한 자세로 범질서를 수호하며, 끊임없
 는 인격 도야를 통해 교정행정을 발전시키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헌신은
 국가의 안전과 사회 질서 유지에 필수적이며, 그 가치는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궤를 같이합니다. 이제는 교도관 또한 당당한 제복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존중과 감사를 받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6월 6일은 제기회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령들의 거룩한 뜻을 되새기는 날이며, 6월 호국보훈의 달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의 헌신에 감사와 경의를 전하는 달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국립현충원과 서울남부교정시설 충혼탑에 모신 순직 교도관
 및 순직 의무교도대원들을 찾아뵙기를 권합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우리 결의 국가유공자들에게 따듯
 한 마음을 전할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한 단계 더 성숙한 공동체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입니다. 교도관의 헌신이 온전한 예우로 되돌아오는 세상을
 기원하며 글을 맺습니다.



이한룡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교감



헌신할 대상을 가진 사람은 길을 잃지 않는다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신기루를 좇느라 정작 삶의 무게감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이들의 뒷모습은 묵직한 울림을 준다.

오늘날 우리는 '무한 선택'의 시대를 살고 있다. 손안의 스마트폰 액정만 넘기면 온갖 쇼핑과 음식, 여행의 선택지가 쏟아진다. 인생 단위에서도 더 나은 직장, 더 근사한 연인, 더 화려한 거주지를 찾아 언제든 새로운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어느 한 곳에 깊이 마음을 주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선택지를 열어두는' 것이 현명함이라 칭송받는다.

하지만 이 현명해 보이는 태도가 우리를 정말로 자유롭게 하고 있을까? 작가이자 사회 활동가 피트 데이비스(Pete Davis)는 저서 『전념』에서 우리가 선택지를 열어두는 진짜 이유는 현명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다른 것을 선택하지 못할까 봐 생기는 '후회에 대한 두려움', 타인과 깊이 엮여 삶의 통제권을 잃을까 봐

느끼는 '유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의 역할에 갇힐까 봐 느끼는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공중에 뜬 상태로 머물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삶의 진짜 면모는 두려움을 뚫고 무언가에 자신을 내던져 헌신할 때 비로소 드러난다.

“선택하고, 행동하고, 전환하고, 공표하는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면, 헌신의 결심이 내 정체성에 선명하게 새겨진다. 대개 이쯤 되면 그때까지 남아 있던 '후회에 대한 두려움'도 전부 사라진다. 나의 외부에서 헌신을 선택하고 그것이 잘 맞는지 고민하는 대신, 그것을 내 안으로, 나와외의 관계 속으로 가져와서 내 정체성의 일부가 되게 한다. 두려움은 희미해진다. 이제 헌신은 선택이 아니라, 내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p.167

실제로 무언가에 전념하는 삶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단단하고 편안하다. 선택지를 열어두고 매 순간 “이것이 최선인가?”를 자문하며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대상이 충분히 가치 있어야 헌신할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무언가가 특별해지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헌신하여 시간을 축적하기 시작할 때부터이다.

“전념하기는 더 기나긴 시간에 장대한 내기를 건다. 여기에는 깊이의 힘이 전제된다. 우리가 시간의 길이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깊이는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일수록 그것은 한층 더 아름다워진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 많은 신성함을 발견한다.”

p.229

IMF가 발표하는 세계 불확실성 지수(WUI)는 현재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회자되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깊이와 헌신의 힘'은 더욱 빛을 발한다. 우리 주변에는 화려한 조명 대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해 시스템의 빈틈을 메우는 공직자들, 효율과 이익보다는 지역의 문화를 지키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믿으며 오늘도 문을 여는 동네 책방 주인들 그리고 자신의 커리어나 욕망보다 가족의 안녕을 우선순위에 두는 평범한 아버지와 어머니들...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무한 탐색'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가장 강력한 저항이자, 헌신의 실천이다.

헌신할 때 우리는 자신의 선택을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고, 동시에 서로를 걱정하며 지지하는 '연대의 힘'을 믿으며, 그 자리를 지킨다. 내가 흔들리면 내 동료, 내 이웃, 내 가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감각을 공유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맺어져 있다는 이 끈끈한 책임감이 바로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닻이 되는 것이다. 동료의 실수를 묵묵히 메워주고, 이웃의 안부를 묻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의 삶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돕는 그 지리멸렬하고도 송고한 과정들!

그것은 피트 데이비스에 따르면, “미래의 일부를 공유하는 취약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용기다. 헌신은 결코 나를 가두는 벽이 아니다. 오히려 나를 나답게 만드는 기반이며, 삶의 가장 깊은 신성함에 도달하는 유일한 통로다.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신기루를 좇느라 정작 삶의 무게감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이들의 뒷모습은 묵직한 울림을 준다. 하나에 전념함으로써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서로에게 의지함으로써 비로소 강해지는 삶. 헌신할 대상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그 확산과 연대가 우리 사회를 여전히 아름답게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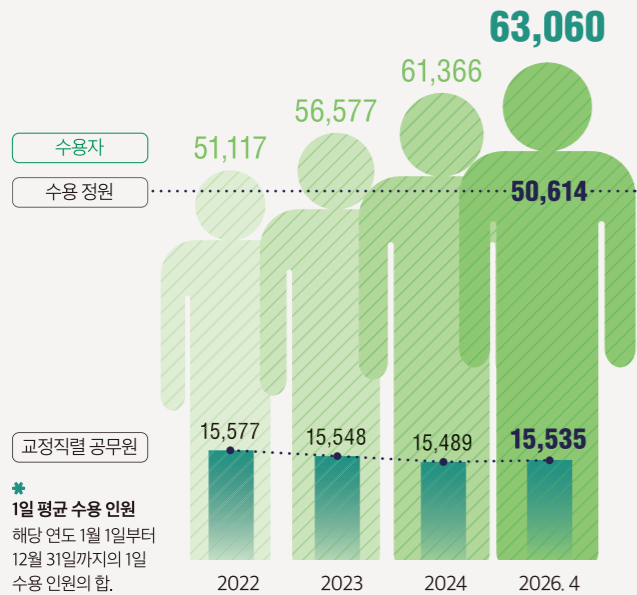
정지우
작가이자 문화평론가, 저작권 분야 변호사.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AI, 글쓰기, 저작권』 등 20여 권의 책을 썼으며, 최근 『오늘의 나를 쓰는 시간』을 출간했다.

수용자 권리와 교정공무원의 일 환경 사이

2024년 수용자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건수는 4,887건이다.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1,191건으로 전년 대비 95.2% 대폭 증가했다.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청구는 5만 3,327건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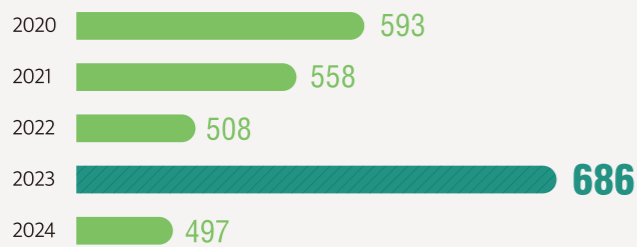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 인원* 현황

단위: 명



수용자 청원 증감 추이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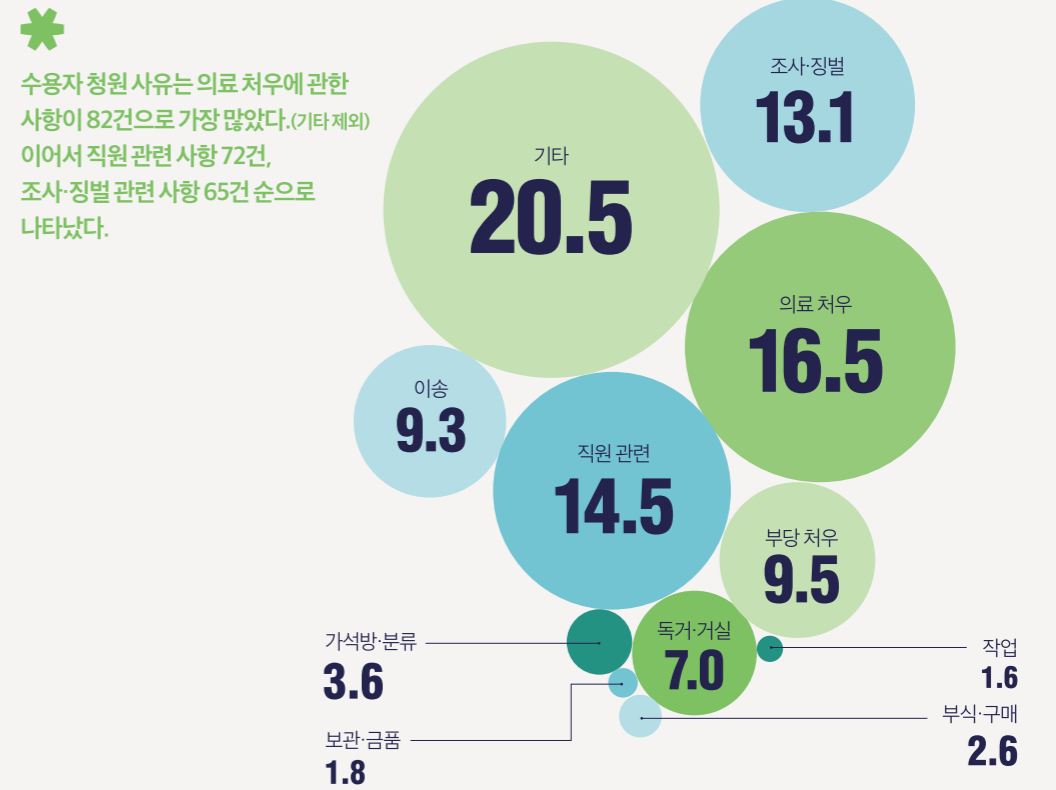


전국 58개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 인원(미결수 포함)은 2026년 4월 2일 기준 6만 3,060명으로 정원인 5만 6,144명을 약 25% 초과한다. 반면 2025년 기준 교정공무원 정원은 1만 6,762명으로, 전년 정원(1만 6,716명) 대비 46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2021~2025년) 퇴직자는 3,997명, 신규 채용 인원은 4,475명에 불과하다. 교정시설 과밀은 2013년 처음으로 수용률 100%를 넘어섰으며, 이후 정원 이하로 떨어진 해는 한 해도 없었다.

한편 수용자의 권리는 헌법, 형집행법을 비롯한 국내법은 물론 유엔(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등 국제 기준에 따라 폭넓게 보장된다. 소장 면담, 청원, 인권위 진정 등 비사법적 구제 수단과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 사법적 구제 수단이 마련돼 있다. 2024년 교도소 수용자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진정 건수는 4,887건으로, 2015년 대비 28.9% 증가했다. 하지만 인권위가 실제 인권 침해로 판단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다. 같은 해 수용자가 낸 진정 가운데 권고 결정은 0.8% 수준으로, 전체 권고 수용률(2.15%)의 3분의 1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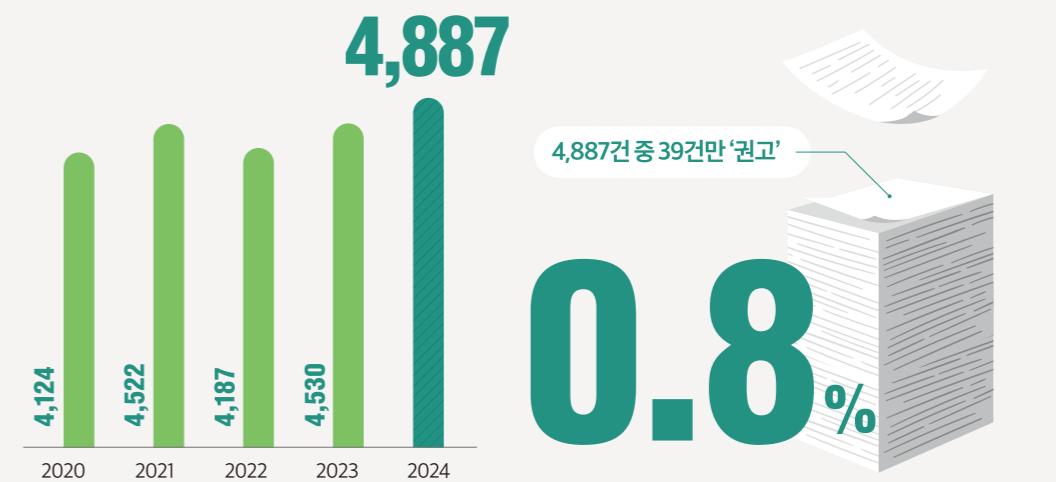
수용자 청원 사유

2024년 기준, 단위: %



수용자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현황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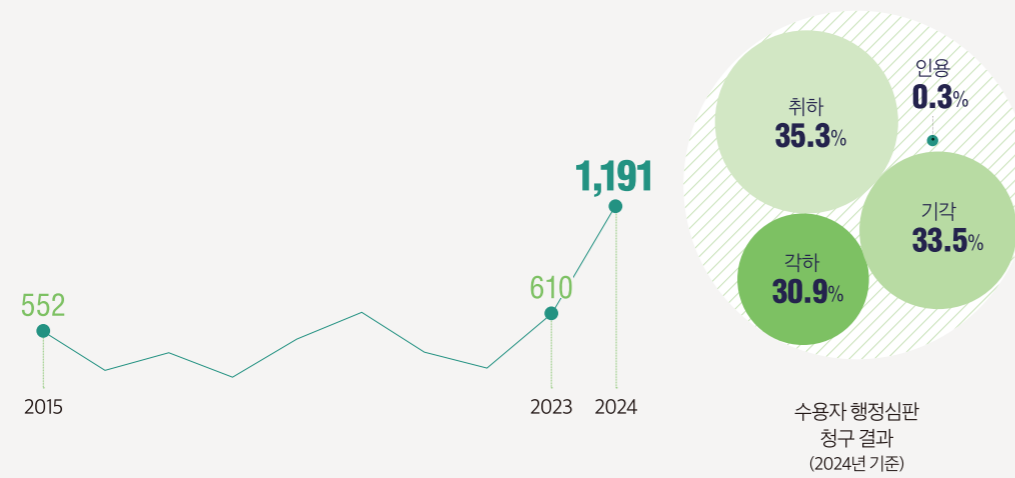


수용자에 의한 고소·고발 폭증, 그러나 99%가 각하·무혐의

수용자들의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2024년 1,191건으로 전년 대비 95.2% 대폭 증가했다. 다만 법원에서 인용된 사건은 10년 누적 5,411건 중 13건(0.3%)으로 매우 적다. 나머지는 기각(33.5%), 각하(30.9%), 취하(35.3%)였다. 근무 과정에서 악의적인 고소·고발,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2024년 수용자에 의한 교정공무원 고소·고발 건수는 7,586건, 피소 인원은 1만 5,834명에 달한다. 이 중 70.1%는 각하, 22.4%는 무혐의였고, 기소나 기소유예는 0.1%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수용자에 의한 교정공무원 폭행 건수는 152건으로 기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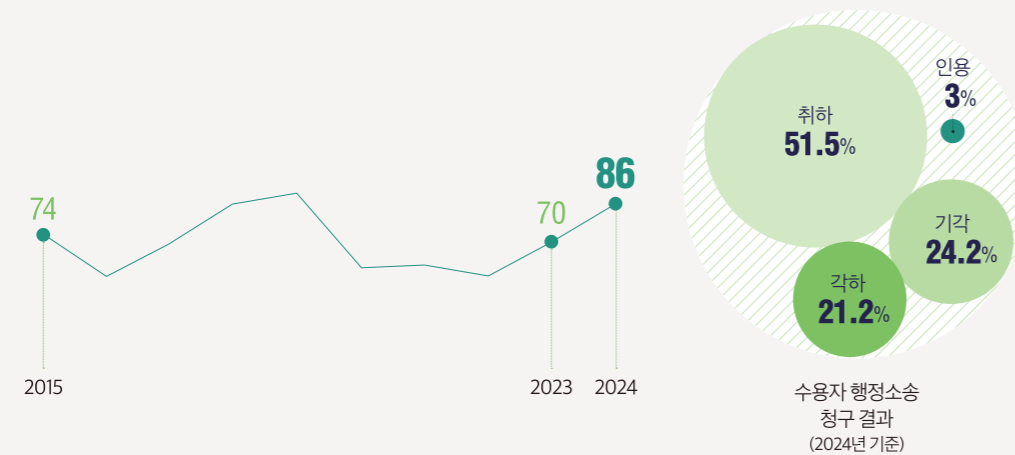
수용자 행정심판 청구 현황

단위: 건



수용자 행정소송 청구 현황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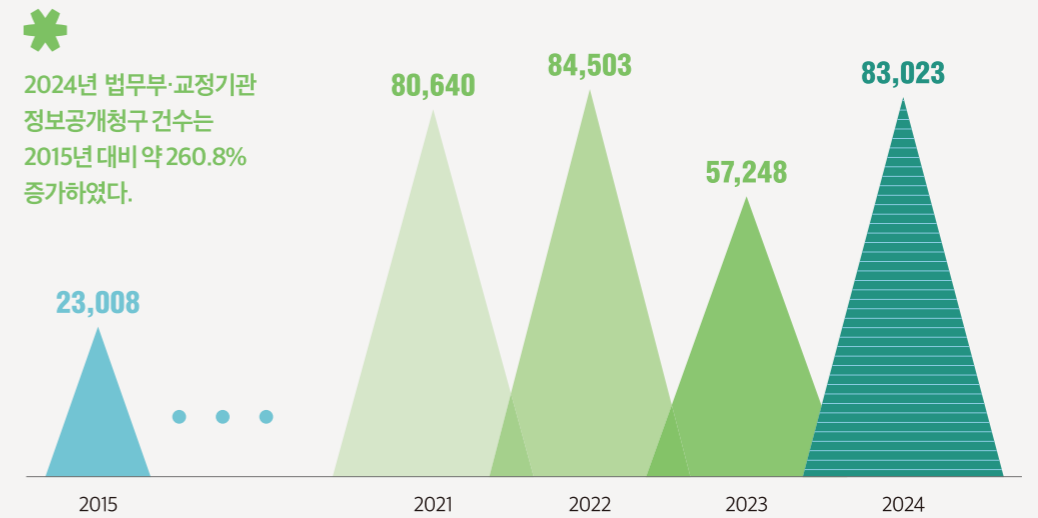


수용자의 정보공개 청구, 어디까지 '알 권리'일까

2024년 한 해 동안 교정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는 5만 3,327건으로, 이는 법무부 전체 정보공개 청구 건수의 64.2%에 해당한다. 2015년과 비교해 무려 219.2% 증가한 수치다. 청구 건수의 대부분은 '수용자에게 매월 라면을 지급하는 규정' 같은 황당한 요구이거나 '교정공무원의 가족관계와 집 주소' 등 위협적인 요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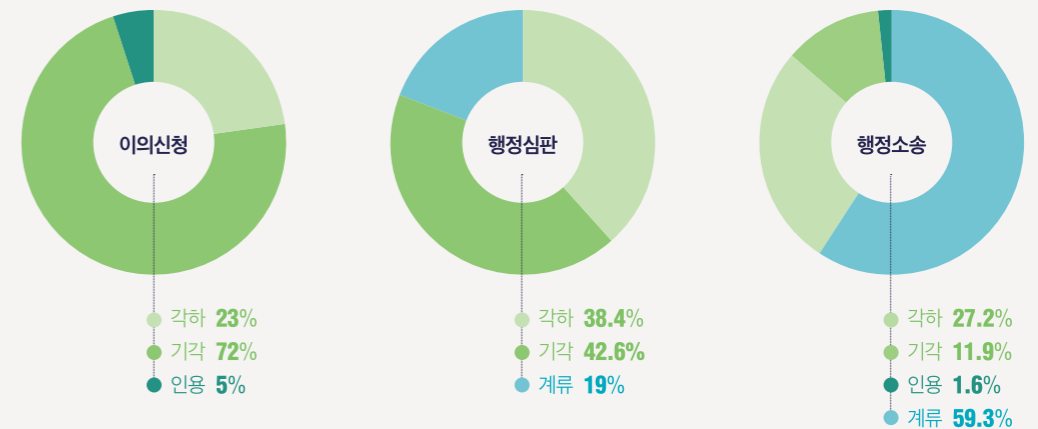
법무부·교정기관 정보공개 청구 현황

단위: 건



정보공개 구제 절차 처리 현황

2024년 기준



“You go! We go!”

대구교도소 정청열 CRPT 팀장이 구호에 새긴 진심

숫자뿐인 출동 신호, 그 뒤에 벌어질 일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렇기에 정청열 팀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하는 리더’를 맨 앞에 둔다.
단 하루도 어김없이, CRPT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1950년부터 2022년까지 수용자에 의한 피습, 호송차량 전복 등 사유로 순직한 교정공무원 수는 94명이다. 교정 사고는 2018년 처음 1,000건을 넘었으며 2023년에는 1,795건을 기록했다. 이 중 수용자에게 직원이 폭행당한 사건은 2014년 49건에서 2023년 190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수용자 간 폭행, 수용생활 방해, 자해 등의 총합은 2024년 기준으로 1만 건을 상회한다. CRPT (Correctional Rapid Patrol Team, 교정기동순찰대)는 이렇듯 교정공무원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탄생했다. 대구교도소 정청열 CRPT 팀장은 2017년 처음 CRPT 근무를 경험했다. 누군가 해야 한다면 내가 하겠다는 의지의 발로, 지원 동기는 그게 전부였다. 2023년 다시 대구교도소로 돌아온 그는 2024년부터 현재까지 CRPT 팀장을 맡고 있다. 숫자뿐인 출동 신호, 그 너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망설임 없이 그곳에 가는 사람들. 그들의 수장으로서 두 번째 CRPT 근무 중인 정청열 팀장은 단 하나, 반드시 지키는 원칙이 있다고 했다. “You go! We go!” 팀의 구호 그대로, 상황 발생 시 팀장인 그를 포함해 근무 중인 모두가 함께 출동하는 것. 단 한 명의 팀원도, 단 한 번도, 고립과 그로 인한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누구나 CRPT가 될 결심을 하는 건 아닐 텐데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2017년 대구교도소 조사·징벌 수용동에서 근무 중 CRPT 지원을 결심했습니다. 대구교도소는 타 기관에 비해 더 엄격하게 수용자를 관리합니다. 그럼에도 수용생활 중 규율을 위반하는 수용자가 적지 않았어요. 규율 위반 수용자가 많으면 교도관이 힘들어집니다. 청송에서 근무한 경험과 조사·징벌 수용동에서 쌓은 노하우가 수용 질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더군요. 할 수만 있다면 내 힘으로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의지와 진심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CRPT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CRPT 하면 흔히 제압 능력이나 무도 실력을 먼저 떠올릴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CRPT의 덕목은 조금 달라요. 강한 수용자에게는 엄격하고 힘든 처지에 놓인 수용자에게는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마음, 그게 먼저가 아닐까 해요. 저희들 사이에서 CRPT란 교정시설 내에서 가장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난동 진압의 최

전선이니 위험한 이유는 다들 아실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얼굴에 대놓고 침을 뱉거나 일부러 수용 거실 한 가운데 대변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치우는 것도 저희 일이니 더럽지요. 어려운 일은... 일일이 손에 꼽기에는 너무 많은데요. 최근에는 정신질환 수용자를 상대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매일 그 일을 해내려면 굳건한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의 중심은 역시 사람 아니겠습니까?

2017년이면 CRPT 창설 10년이 채 안 된 시기예요. 당시에 비해 CRPT의 위상과 역할은 얼마나,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실감하실 것 같습니다.

CRPT는 2009년 창설되어 변화를 거듭했어요. 처음에는 복장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군대 조교와 비슷한 근무복을 입었던 걸로 알아요. 현재 CRPT의 위상은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죠. 관련 법령과 규정도 많이 정비됐고요. 지금은 교정시설에서 없어서 안 되는 중요한 팀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긴급상황을 수습한 후에는 어김없이 동료들의 “고맙다” “고생했다”는 말이 등 뒤로 들려요. 제 경우 동료들의 근무 환경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했기에 더욱 뿌듯합니다.

지금처럼 갖춰 입었다는 건, 출동을 앞두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CRPT 대원에게 제복은 어떤 의미인가요?

CRPT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강한 직업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긍심 또한 높습니다. 출근해서 제복으로 갈아입고 나면 말과 행동을 각별히 조심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익명으로 만드는 옷이기도 합니다. CRPT 제복에는 계급장도 명찰도 없습니다. 제복을 입는 순간부터 CRPT라는 역할, 즉 해야 할 일만으로 존재하는 거죠.

TV에서 본 어느 CRPT 대원의 눈물을 기억해요. 가족들과 하루 일과를 나눠본 적이 없다고... 두 번째 CRPT 근무 중이신데, 긴장감은 여전한가요?

CRPT의 주요 업무는 긴급상황 출동, 수용동 순찰, 규율 위반 행위 단속, 기초질서 확립 등이예요. 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특히 대구교도소는 대형 교정시설인 만큼 매일 많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많게는 하루에 열두 번도 출동한 적이 있으니까요. 순찰이나 대기 중에도 긴장을 놓을 수 없어요.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출동 요청이

"저희 막내인데 태권도 공인 3단입니다." 긴급상황을 종료하고 돌아오는 길, 정찰열 팀장의 자랑이 걷는 내내 이어졌다.



CRPT 근무복에는 계급장과 명찰이 없다. 근무복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교정장과 태극기, CRPT라는 네 글자로 존재한다.

오는 순간부터는 무조건 뚝니다. 머릿속으로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면서요. 또 규율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보직이다 보니 수용자들과 적대적인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상황에서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CRPT 근무 중이지만, 저도 가족들과 업무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많으니까요.

본격적으로 대구교도소 CRPT팀 자랑을 해볼까요? CRPT 대원이 되려면 3단 이상의 국가 공인 무도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스펙 면에서는 다른 시설 CRPT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막내가 태권도 공인 3단이고, 6단 이상 자격증을 가진 팀원도 있어요. 상담 전문가와 응급구조사 자격증 보유자도 있습니다. 대구지방교정청 내에서는 규모가 제일 크고요. 모두 11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자랑이라면 '구성'이 좋다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CRPT의 능력은 무도 실력이 전부 아니니거든요.

무도 실력 외에 또 무엇이 강한 팀을 만드나요?

저보다 두 살 위고 직급은 한 계급 낮은 형님이 계셨어요. 태권도 블랙벨트 보유자였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드물었어요. 표를 안 냈거든요. 다만 출동 신호가 뜨면 언제나 맨 앞에 그분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먼저 나서서 처리했어요. 자신감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CRPT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계셨던 거죠.

"You go! We go!" 사무실에 이 말이 적혀 있던데요.

저희 팀 슬로건이자 실제로 매일 실천하는 행동입니다. 영화 「분노의 역류」에 나오는 대사인데 저희 팀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은 누구도 '혼자' 가지 않거든요. 아무리 작은 일도 함께 해결해요. 화재가 그렇듯 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긴급상황은 뒤에 어떤 일이 도사리고 있을지 몰라요. 작아 보이는 일도 누군가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죠.

모든 리더가 같은 색깔의 리더십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CRPT 팀장의 역할,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있다면요?

저에게 리더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출동 신호가 뜨면 가장 먼저 장비를 챙겨서 맨 앞에 선다, 그게 저의 변함없는 원칙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CRPT 팀장이 같을 거라고 믿어요. 아니, 같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팀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으니까요. CRPT는 서로를 철저히 믿어야 해요. 현장에서 말을 주고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내 뒤에 항상 동료와 있고, 그가 빈틈없이 해줄 거라는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려면 함께한 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대구교도소 CRPT 팀장으로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까요?

큰 목표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CRPT 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아무도 다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치면 안 되고 수용자도 다치지 말아야 하죠. 당연한 말 같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수갑에 방해, 테이저 건까지 동원돼야 하는 상황도 자주 있으니까요.

검은 제복을 벗는 날, CRPT로 일했던 시간은 팀장님께 게 어떤 의미로 남을까요?

교정시설 CRPT의 역할은 하나로 규정할 수 없어요. 수용자 간 폭행, 소란, 난동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가장 먼저 출동해 초동 조치를 하는 경찰관이 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소방관이, 환자가 생겼을 때는 구조사 역할도 해야 하죠. 또 수용생활로 힘들어하는 수용자에게는 가까이 상담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교정공무원으로 일하며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힘들지만 보람 있는 보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이 근무복을 벗고 다른 직무를 맡게 될 테지만, 그때도 CRPT 정신으로 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들고 위태로운 곳에서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사람으로요.

글 정평화 사진 이용기





왼쪽부터 임건우 교사, 김인휘-손주영 교위, 윤정민 교도, 김춘석 교감.

경북북부제2교도소
중범죄자 수용동
5인방을 만나다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출근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중구금시설 교도관들이 가장 믿는 존재는
다른 누구도 아닌 '서로'였다.

‘대한민국 유일의 중구금시설’
경북북부제2교도소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다.
위치는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육지의 섬’으로
불리는 곳. 최고 경비 등급인 S4급 수형자와
이상동기 중범죄자, 상습 규율 위반자, 폭력성향군
수형자가 이곳에 수용된다. 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용부를 제외한 모든 수용자가
독거실에 수용되며, 복도와 운동장을 비롯한
수용자의 모든 동선에는 고성능 CCTV가 설치돼
있다. 중구금시설 교도관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이정표가 가리키는 초입에서 차로 5분여,
구불거리는 산길을 올랐다.
양옆으로 둘러쳐진 철조망이 대한민국 유일의
중구금시설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렸다.

Part 1

중구금시설 교도관으로 일한다는 것

“익스트림(Extreme)하지예.” 자부심에 대해 물었을 때, 손주영 교위
가 내놓은 답이다. 그의 근무지는 폭력성향군 수용동, 수용자 간 폭
행이 2회 이상인 수형자들이 모인 곳이다. 김춘석 교감은 2000년
청송제2교도소(현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첫 발령을 받은 후 27년
째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는 폭력성향군
수용동을 관리하는 3팀 팀장이다. 2025년 7월 입직한 김인휘 교위
의 현 근무지는 이상동기 수용동으로, 전 국민에게 얼굴과 이름을
알린 신상공개 범죄자들이 이곳에 수용된다. 임건우 교사는 중범죄
자들이 수용된 7수용동을, 윤정민 교도는 손주영 교위와 함께 폭력
성향군 수용동을 관리하고 있다. 중구금시설인 경북북부제2교도소
내에서도 따로 분류되는 ‘중범죄자 수용동’, 발령의 순간은 어떤 기
역으로 남아 있을까?

“업무 강도가 높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연수원에서부터
경북북부제2교도소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요. 이곳에서 교도관
생활을 시작하면 압축적으로 배울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지원했어요.
물론 이 정도일 줄은 몰랐지만요, 하하.”

김인휘 교위

“저는 2022년 입직해 5년째 교도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첫 배명지가
바로 옆 경북북부제3교도소였는데도 근무 첫날에는 기대보다
두려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S4 전담 기관’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지금은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가
대한민국 교정행정에서 맡은 역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임건우 교사

“두려움 반, 기대 반이었는데 다행히 잘 적응한 것 같아요.
선배님들 조언이 큰 힘이 됐고, 몸으로 부딪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출근할 때 ‘오늘도 무사·무탈하자!’고 다짐하는데요. 그런 다짐이 쌓여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도관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윤정민 교도

걸어도 5년을 넘기지 않은 근무 기간을 거친 교도관들의 답변이 안
겨운 첫인상은 ‘담대함’이었다. 두려움은 짧았고 자부심은 이어지고
있었다. 손주영 교위가 꼽은 중범죄자 수용동 교도관에게 가장 필
요한 덕목 또한 궤를 같이한다.

“거칠고 돌발 행동을 일삼는 수용자가 대부분이에요.

이들을 상대하려면 우선 침착해야 하고, 자신의 업무를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책임감이 강해야 해요. 더욱이 여기 수용자들은 20회,
30회씩 징벌을 받아봤어요. 그런 수용자들은 징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면 시스템과 규정은 다른 교정시설과 대동소이하죠.
근무자의 능력으로 돌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손주영 교위

Part 2

‘정’이 아닌 ‘집단지성’으로 이뤄낸 팀 빌딩

베테랑 비중이 높은 지역 교도소에서 가장 자주 듣게 되는 호칭은
‘형님’이다. 친근함을 기반으로 한 신뢰가 느껴진다. 그럼에도 경북북
부제2교도소에서는 형님이 아닌 직급으로 서로를 기억한다. 이 원칙
은 선배가 후배를 부를 때, 더욱 철저하게 지켜진다.

“경직된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이런 태도가 수용 관리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수용자를 면밀히 관찰하는 동안
수용자들도 우리의 동태를 살핍니다. 더욱이 이곳의 수용자들은
그런 일에 능숙한 이들이예요. 선후배 간에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
수용자들도 함부로 못하죠. 저는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
한동안 말을 놓지 않습니다. 기회가 닿아서
상대의 동의를 얻은 후에야 비로소 말을 놓습니다.
수용자가 보고 있지 않더라도, 선배가 후배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건 좋아 보이지 않아요. 교도관은 존중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춘석 교감

존중을 최우선에 두는 선배는 후배의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김
인휘 교위는 이상동기 수용동 근무 첫날의 기억을 이 질문에 대한 답
으로 꺼내놓았다.

“처음 배치를 받은 날, 제가 팀실에 전화한 횟수가 30번도 넘을 겁니다. 수용자와 상황에 대해 충분히 숙지했다고 생각했는데, 현장은 제 예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엄청 불고하고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음의 부담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선배님 중 누구도 저를 탓하지 않으셨어요. 모르는 것은 주위에 물어서라도 같이 문제를 해결해주셨어요.”

김인휘 교위

마치 1년 같았을 하루가 눈에 섰다. “죄송합니다”로 시작하는 전화를 걸면서 긴장감과 책임감을 넘나들었을 시간. 첫 경험을 고백하느라 두 뺨이 붉어진 후배에게 선배는 칭찬을 건넸다.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손주영 교위가 말했듯이 저희 소 시스템과 매뉴얼은 타 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매뉴얼에 들어맞지 않는 상황이 매일 일어나죠. 요즘 후배들은 머리로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들어옵니다. 매뉴얼을 몰라서 당황하는 게 아니에요. 다행히 선배들은 여러 부서를 돌며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팀실에는 그런 선배가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있고요. 더욱이 중범죄자 수용동처럼 예측불가한 현장에서는 더 많고, 더 세심한 조언이 필요해요. 스스로 확신이 없을 때는 물어보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김춘석 교감

“중범죄자 수용동을 관리하다 보면 스스로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를 쓰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오로지 교도관을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이런저런 요구를 해오는 수용자들이 많다 보니, ‘아프다’는 얘기를 들어도 피병은 아닌가 의심부터 하게 되죠. 그날도 ‘팔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수용자가 있었습니다. ‘오후에 진료를 보내줄 테니 조용히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던 중 김춘석 교감님이 오셔서 ‘응급상황인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의료과에 10년 근무하신 경험과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쌓은 지식이 빛을 발한 거죠. 해당 수용자는 결국 뇌경색 진단을 받고 외부 의료기관에 입원했습니다. 중범죄자 수용동에서 체면이나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야 해요.”

손주영 교위

Part 3

최후의 보루라는 자부심을 넘어

대화가 깊어질수록 그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가 궁금해졌다. 중범죄자 수용동 교도관들도 수용자에게서 희망을 볼까? 김춘석 교감은 2025년 3월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이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을 뒤덮던 날의 경북북부제2교도소 이야기를 들려줬다. 화재 발생 149시간(약 7일) 만에 주불 진화가 이뤄졌고, 5개 시군에

서 약 9만 9,289ha의 산림 피해와 1조 원에 달하는 피해액, 57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산불이었다.

“주변이 온통 불이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기가 자욱했으니까요. 수용자들을 대구교도소로 이송하라는 결정이 떨어졌고, 아수라장 속에서 한 명씩 끄집어내서 수갑을 채웠습니다. 저희 교도관들도 많이 놀랐어요. 평소에 난동을 일삼던 수용자들이 군소리 하나 없이 저희 지시를 다 따라왔습니다. 대구교도소에 가서도 단 한 명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 정도로 수용 질서를 잘 지켰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교도관이라면 희망을 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으로 교화에 최선을 다해야죠. S4급 수용자들도 언젠가 형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갈 것이고, 그들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김춘석 교감

두려움으로 시작한 인터뷰는 어느새 자부심을 향하고 있었다. 바위 같은 선배들의 연대와 지지 속에서 매일 더 단단해지고 있는 젊은 교도관들, 그들의 가슴에는 이유 있는 자부심이 닿을 내리는 중이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전과 후, 자부심의 크기는 얼마나 달라졌나요?’ 같은, 뻘한 질문에 돌아온 그들의 진심은 다음과 같다.

“수용자들이 제 지시를 따르는 이유는 위압감이나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복 입은 교도관으로서 법적 근거에 입각한 정당한 지시를 내리기 때문이죠.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저에게 커다란 확신을 줍니다. 내가 세운 원칙이 수용동의 질서가 되고, 그 질서가 우리 사회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매일 눈으로 확인하고 있거든요.”

임건우 교사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중구금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에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이상동기 수용동 교도관은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말아야 하고, 언제나 한 발 앞서 상황을 예측해야 합니다. 근무 강도는 분명히 높지만, 그만큼 업무 역량을 빠르게 키울 수 있는 곳입니다.”

김인휘 교위

“가능한 오래, 정년을 꼭 채워서 교도관으로 일하고 싶어요. 오래 일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경험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힘든 시간을 견뎠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보낸 2년은 교도관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밀도’ 높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경험이 제 꿈을 이뤄줄 것 같습니다.”

윤정민 교도

글 정령화 사진 이용기

문제적 수용자를 제압하는 나의 눈빛 레이저를 소개합니다



신주영 교위

서두르지 않는 것. 폭력성향군 수용자들은 불편을 참지 않습니다.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그래서 저는 신규 이입이 있는 날이면 최대한 조용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교정사고를 예방하는 저만의 방법이지요. 처벌보다 교화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니까요.

김춘석 교감

“아이고, 이노마야 많이 출제.” 수용자가 보내온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수용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위력이 아닌 관심과 응원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요. 외로움으로 황폐해진 수용자들의 가슴을 적셔줄 한 줄기 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제가 생각하는 교도관의 모습입니다.



김인휘 교위

중구금시설 교도관에게는 ‘침착함’과 ‘관찰력’이 생명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하니까요. 긴장도 높은 상황에서 끝까지 책임지려는 노력! 지금의 저에게는 유일한 눈빛 레이저 기술입니다.



임건우 교사

“수용자에게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마라.” 선배님에게 전수 받은 노하우를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수용자의 요구에는 친절하게 응대해야 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말들도 있습니다. 그 외 사적인 대화를 자주 하다 보면 감정 섞인 말들을 주고받게 되더라고요.

윤정민 교도

허리에 손을 올리고 수용자의 눈을 10초간 쳐다봅니다. 이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10초가 지난 후 엄중한 목소리로 지시 이행을 말합니다. 교도관에게 자주 기싸움을 걸어오는 수용자라면 숨겨뒀던 강렬한 눈빛까지 총동원합니다!



서울남부구치소가 반부패·청렴 문화에 스며든 날!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국민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다. 2026년 5월 '청렴의 날'을 푸른빛으로 물들인 서울남부구치소 반부패·청렴 캠페인 현장 속으로!



초여름 기운이 슬며시 고개를 내민 5월의 어느 날, 서울남부구치소 보안청사 앞이 평소와 달리 북적였다. 태극마크가 선명한 어깨띠를 매고 파란 리플릿을 건네는 손길, "부정청탁 No! 금품수수 No!"를 외치는 목소리, 커피를 내리는 기분 좋은 소음... 법무부가 매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한 '청렴의 날'을 맞아 서울남부구치소가 반부패·청렴 캠페인에 나선 현장이다.

법무부는 반부패·청렴 문화 활성화를 위해 '청렴의 날'을 운영하고 퀴즈 이벤트, 청렴 콘텐츠·아이디어 공모전 등 직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열었다. 서울남부구치소는 올해 다섯 번째 청렴의 날인 이날을 청렴을 상징하는 푸른빛으로 물들였다. 이번 캠페인을 위해 제작한 리플릿은 그야말로 평한 파란색! 주요 내용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행동 강령이다. 공직자를 보는 국민들의 눈높이가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몰라서' 위반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서울남부구치소는 직원들에게 청렴 리플릿을 공유하는 한편, 청사 내 전광판과 배너에 법무부 청렴 구호인 '청렴·정직·신뢰'를 게시, 캠페인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또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청렴 서약에 참여해 청렴한 공직 생활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캠페인에 눈에 띄는 '신스틸러'가 있었으니, 『교정』에서 보내온 커피트럭이 주인공이다. 때마침 찾아온 이른 더위에 지친 직원들에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단비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서울남부구치소와 『교정』의 호흡이 돋보이는 장면도 빼놓을 수 없을 듯. 서울남부구치소는 청렴 문화 확산 메시지를 담은 스티커를 미리 준비해 컵 슬리브에 부착, 어쩌면 평범할 수 있는 커피를 '청렴 커피'로 변신시켰다. 커피트럭 옆에 서약서를 배치한 센스에도 엄지 척!



이날 캠페인을 진행한 관계자는 "청렴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동료와 나누는 커피 한 잔처럼 우리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하는 가치"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열의를 보였다. 때 이른 더위를 쫓아낸 시원한 커피처럼, 이들의 청렴한 열정이 교정 현장을 더욱 맑게 깨울 것을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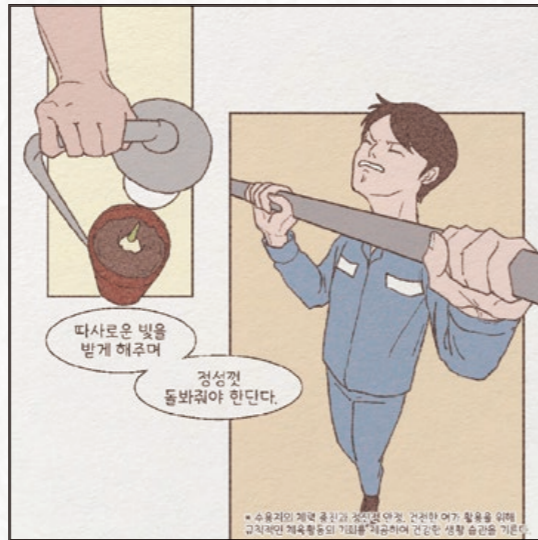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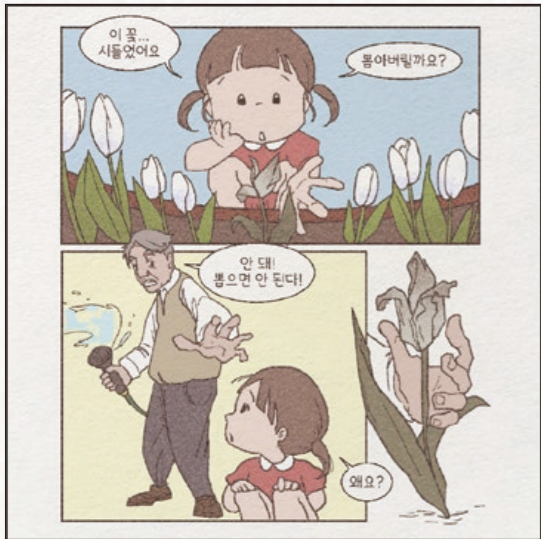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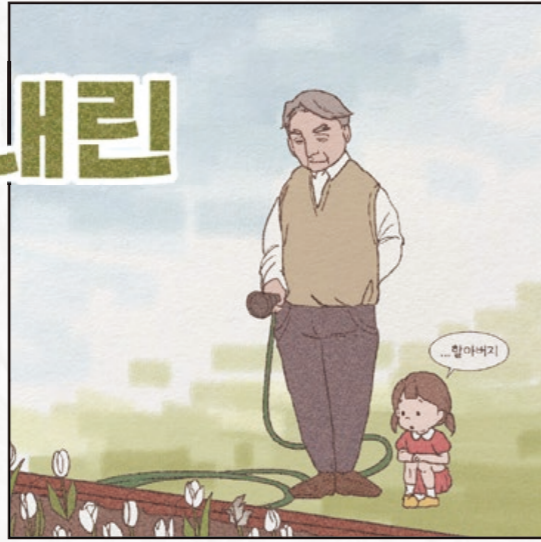
구성 편집부 사진 서울남부구치소

커피트럭 보내드려요!
『교정』의 커피트럭 응원은 2026년 12월까지 계속됩니다. 기억하고 싶은 순간, 특별한 행사를 앞둔 교정기관에서는 신청해주세요.
신청 방법
법무부 교정기획과
correct2023@naver.com



다시 내린 뿌리

「2025 법무부 교정본부
홍보 콘텐츠 공모전」
웹툰 부문 최우수작!



당신의 심포는 어떤 풍경인가요?

매일이 싱그러운 계절, 삶을 풍요롭게 가꿀 줄 아는 이들이 보내온 '나의 심포'.



김재운 교위
경주교도소



#출근길이 #벚꽃길

해마다 봄이 되면 경주는 평소보다 더 북적입니다. 벚꽃이 만개하기 때문이죠. 경주IC부터 길게 늘어진 차들의 행렬을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경주교도소 직원들은 벚꽃놀이를 하러 굳이 사람 많고 차 많은 곳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출근길에 이미 벚꽃놀이가 시작되니까요. 보름 달처럼 환하게 만개한 벚꽃도 황홀하지만, 바람 불어 꽃비 내리는 경주교도소는 더 아름답습니다.

김나은 청년인턴
대구교도소



#청년인턴 #설렘

안녕하세요. 대구교도소 청년인턴 김나은입니다. 첫 직장이 교도소라니! "어머, 축하해! 어느 회사야?" "응, 대구교도소" 그다음 반응은 다들 짐작이 가시죠? 하지만 저는 기대보다 더, 더, 더 즐거운 첫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 따뜻한 선배들과 함께하는 순간들이 너무 행복하고요. 매일 아침 출입증을 목에 걸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권경희 교위
청주여자교도소



#퇴근길 #행복나눔

청주여자교도소에는 '심포'라는 두 글자가 적힌 공간이 있습니다. 업무에 지치고 수용자에 처인 직원들의 그늘이 되어주는 곳입니다. 이 맘때면 발 아래 펼쳐지는 초록이 그만이고, 유난히 시원한 바람이 자주 찾아오는데요. 요즘 저는 퇴근길에 이곳에 들러 동료들과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고민은 나누면 절반이 되고, 행복은 나누면 두 배가 된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어요.



이나경 교사
천안개방교도소



#냥스타그램 #개방이

천안개방교도소에만 있는 특수한 보직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힐링 담당관'입니다. 하는 일은 직원들 마음 녹이는 애교 발산, 솜방망이 같은 네 발로 청사 구석구석 누비기, 무엇보다 예뻐 받기! 천안개방교도소 마스코트가 고양이 '개방이'이거든요. 그곳을 자신의 집으로 정한 고양이라니! 직원들도 이 운명적인 만남을 신기해하며 듬뿍 사랑을 주고 있어요. 고양이도 그 마음 받고, 매일 미모 갱신 중입니다.



Your Story

'소중한 순간'을 보내주세요!

행복한 순간을 공유해주세요. 동료 자랑, 나의 취미, 도전의 순간 등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기록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2장 내외의 사진과 간단한 사연을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시는 분께는 『교정』이 마련한 선물을 드립니다.

보낼 곳 법무부 교정기획과 correct2023@naver.com

여행자는 잘 모르는, 전주 사람의 1박 2일 코스

관광객과 어깨를 부딪치지 않고는 걸을 수 없는, 한옥마을을 벗어난 전주 여행은 가능할까? 전주교도소 최현민 교감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누가 물으면 전주 사람이라고 그러합니다.” 최현민 교감은 김제에서 나와 자라 전주 여자와 결혼했다. 전주에서 두 딸을 키웠고, 첫 교도관 생활 13년 중 12년을 전주에서 했다. 어느덧 전주는 글로벌한 여행지가 됐다. 한옥마을에서 어귀를 돌았을 때, 외국인 여행자와 마주칠 확률은 100%에서 한 자릿수가 빠지는 정도가 아닐까.

여행자는 많아졌지만 여행의 목적과 동선은 대개 비슷하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촬영지였던 학인당을 비롯해 유서 깊은 한옥에 머물며 경기전과 전통성당을 구경하고 '가맥'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기. 젊은 여행자들은 인스타그램이 안내하는 '감다살(죽어가던 감이 다시 살아난다는 신조어)' 여행지로 코스를 구성한다. 전주 사람의 일상에 녹아 있는 전주를 경험하고 싶다면 어디로 향해야 할까? 최현민 교감이 내놓은 답은 '자연'이다.

“또래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전주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봤습니다. 답이 나오더군요.” 최현민 교감은 등산 애호가는 아니다. 굳이 집어 말하자면 '산책가'에 가깝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전주천을 따라 걷고, 오후에 술 약속이 있는 주말에는 강도를 높여 낮은 산에 오른다. 전주의 산은 누가 누가 높은가를 자랑하는 쪽은 아니다. 들과 이어진 완만한 곡선, 그 산들을 너르게 에워싼 전주천은 군산 바다로 느리게 빠져나간다. 도심의 편리한 인프라 속에서 안락하게 자연을 누리기에 전주만 한 도시도 없다는 것이 전주 사람 최현민의 결론!

전주의 자연에 스며들 마음을 준비한 이들에게 추천하는 첫 번째 행선지는 남고산성이다.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일원에 자리한 사적 제294호' 이름과 안내판 첫 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남고산성 산책로는 역사의 길이다.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 도성인 전주를 방어하기 위해 쌓았다 하여 '견훤산성'이라고도 하며, 남고산의 주봉인 고덕산의 이름을 따서 '고덕산성'으로도 불린다. 가파른 산세 덕에 기어오르는 적들을 한눈에 바라보며 격퇴할 수 있는 천연 요새였다지만, 등산 좀 해본 이들에게는 졸졸 개울물 소리를 배경 삼아 한 바퀴 휘휘 돌아보고 내려오면 그만인 왕복 2시간 남짓의 쉬운 코스다. 문득 돌아보면 대숲에 초록빛 바람이 이는 정경을 볼 수 있고, 내려오는 길에는 천년 고찰 남고사 약수로 한숨 돌릴 수 있는, 산책의 묘미로 가득한 길이기도 하다. 하이лай트는 역시 정상. 남고산성은 천경대와 만경대, 억경대 봉우리를 성곽으로 연결하고 있는데 최현민 교감은 억경대 쪽으로 길을 잡았다.

이유는 올라본 자만이 알 수 있다. 들로 쌓은 성곽 위에 자리한 억경대는 '억 개의 경치를 품은 대'라는 뜻일 터, 과연 전주의 자연과 도심이 한눈에 펼쳐졌다. 전주를 가로질러



흐르다 군산 바다를 향하는 전주천이 선명했고, 때마침 불어온 바람에 느티나무 잎들이 '짜아짜아' 나지막이 소리를 질렀다.

여행의 낭만을 만끽하고 싶은 이들에게는 전주천을 권한다. “아이들 어릴 때는 여기 와서 물에 발도 담그고 그랬습니다.” 최현민 교감뿐 아니다. 전주천은 전주 사람들의 삶과 늘 함께해왔다. ‘천’이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전주천은 길고 아름답다. 발원지인 슬치개로부터 북서쪽으로 흘러 수원천과 합류하고, 전주시 덕진동에서 삼천과 만나 만경강으로 유입되는데, 총 연장이 무려 24.87km에 달한다. 관류하는 곳곳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양 옆으로 조성된 산책로는 전주 시민들의 각별한 휴식처다. 한때 생활폐수로 오염되기도 했지만, 2000년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을 시작, 1급수 지표종인 쉬리와 수달이 살고 흰목물떼새가 찾은 지도 벌써 오래다. 짧은 시간 동안 전주천을 여행하려면 거점은 전주자연생태관이 좋겠다.



생태관 앞에서 공영 자전거를 대여해 천주교 치명자산 성지까지 라이딩을 즐기거나 방향을 틀어 이웃한 한옥마을을 한 바퀴 둘러보는 코스, 어느 쪽을 선택해도 후회는 없다. 사실 자전거를 타지 않아도 상관없다. 햇빛을 힘껏 머금은 버드나무 아래서의 산책, 벤치에 앉아 전주천을 면면히 흐르는 윤슬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여행의 낭만은 부족함이 충전될 테니.

저물녘이 가까워 오면 동고산성으로 가야 한다. 동고산성은 최현민 교감이 전주를 방문하는 지인에게 일순위로 추천하는 곳이다. 이유는 분명하다. 오붓하게 전주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 “동고산성은 전주 현자인 중에서도 아는 사람만 가는 야경 스폿입니다. 차를 이용하면 걷는 거리는 10분이면 충분하다는 것도 매력이지요.” 동고산성은 둘레 1,712m의 대규모 산성으로, 견훤 왕궁터가 자리하고 있다. 비록 궁성은 사라지고 터만 남았지만 전주에서 후백제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이다. 낮



에는 승암산 풍경을 배경 삼아 왕궁터를 따라 걷는 좋은 트레킹 코스가 된다. 하지만 오늘의 목적은 야경 감상. 군경요지를 지나 동고산성 표지판을 따라 올라 느티나무가 있는 공터에 주차를 한다. 여기서 대나무 길을 향해 10분 정도 오르면 계단이 나온다. 이윽고 가까운 한옥마을에서 멀리 모악산까지 품은 야경이 펼쳐진다.

드디어 전주의 밤! 이제 미식의 도시를 만끽할 차례다. 최현민 교감은 처가 사람들에게 전주의 맛을 배웠다. 메뉴 선정이 특별한 건 아니다. 분명한 건 전주 사람들도 인정하는 맛이라는 것. 그가 제안하는 미식 코스 일번지는 경원동에 위치한 ‘꼬꼬영양통닭’. 1974년 문을 열어 한때 직원이 25명에 이를 정도로 명성이 높았던 곳이다. 최현민 교감이 알려준 팁은 하나, “7시 이후에는 전화로 주문을 해줘야” 한다는 것. 문 닫는 시간은 9시지만 준비한 음식이 떨어지면 8시에 문을 닫는 날도 있다.

전주의 가맥을 경험하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하는 곳은 ‘임실슈퍼’다. 가맥 열풍을 불러일으킨 전일갑오가 인근에 있지만 웨이팅을 피하기 힘든 게 현실. 최현민 교감의 임실슈퍼 단골 메뉴는 ‘촉태’다. 바삭한 먹태와 달걀 촉촉하고 쫄깃한 식감이 일품, 마시다 보면 북어 대가리를 넣고 끓인 뚝배기가 서비스로 나오고, 손님이 적은 날에는 직화로 구운 북어 껍질을 내주기도 한다. 요즘 말로 ‘혜자(낮은 가격에 비해 양과 질이 뛰어난)를 뜻하는 신조어’도 이런 혜자가 없다. 이제 남은 일은 전주의 푸근한 밤 공기를 가르며 여행의 설렘을 조금 더 즐기는 것. 기대하지 않았던 전주를 만난 터라 설렘의 농도는 보통의 여행보다 진할 것이다.

Eat & Place

맛의 도시 전주의 근본 맛집 그리고 다방



③ 남노갈비 한옥마을 본점

불갈비는 들어봤어도 ‘물갈비’는 처음이라면 남노갈비로 첫 경험을 하길 권한다. 1972년 처음 문을 연 이래 물갈비의 근본 자리를 내어준 적 없는 곳이다. 매콤한 양념에 숙성한 돼지갈비에 콩나물과 당면을 넣어 자작하게 끓여 먹는 갈비전골로, 지방을 일일이 손으로 제거해 맛이 깔끔하다. 먹고 남은 국물에 볶음밥 추가는 필수.



④ 삼양다방

진주 흑백다방과 서울 학림다방보다 먼저 문을 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다방이 아직 운영 중이다. 1952년 문을 열어 피난길에 오른 문인과 예술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으며, 1970~80년대에는 인근 법원과 관공서가 단골로 커피를 주문하던 곳이었다. 전주MBC가 위층에 자리하던 시절도 있었다. 사라질 뻔한 위기 속에서 2014년 다시 단장해 문을 열었는데, 지금도 예전에 사용하던 집기들과 당시 사진들이 전시돼 있어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대표 메뉴인 생화차를 시키면 72시간 동안 달여낸 생화차에 달걀 노른자를 띄우고 견과류를 듬뿍 올려 내준다.



① 현대옥 남부시장점

삼백집에서 댕이집까지, 전주에서 콩나물국밥 선택지는 어마어마하게 다양하다. 완산구 교동의 남천과 서천은 예로부터 물이 맑고 풍부해 콩나물을 기르기 좋았고, 소비할 수 있는 남부시장이 인근에 있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콩나물국밥집이 여럿 생긴 것이 효시. 현대옥은 지금은 전국적 프랜차이즈 맛집이지만, 발원지에서 맛보는 콩나물국밥으로 여행의 스타트를 끊어도 좋겠다. 보드라운 수란과 탱글하게 삶아낸 오징어, 국밥을 보약처럼 대하는 정성이 한 그릇을 꽉 채운다.

② 꼬꼬영양통닭

올해 오픈 52년을 맞이한 전기구이 통닭집의 상차림은 우리가 기억하는 그대로다. 케첩과 마요네즈를 섞어 올린 양배추, 아삭하게 절인 무, 가운데를 차지한 통닭의 살은 결결이 부드럽고 속은 적당한 소금기를 품은 찰밥으로 차 있다. 비법은 새벽 4시부터 영업을 준비하는 마음과 두 번 굽는 정성. 메뉴는 전기구이 통닭과 무를 채 썰어 넣고 칼칼하게 끓인 닭곰탕, 단 두 가지다.



⑥ 색장정미소

1950년대 정미소 건물을 리모델링한 복합문화공간이다. 붉은 양철 지붕을 비롯해 외관은 예전 모습 그대로. 폐가로 사라질 뻔한 공간을 주인장이 작은 박물관을 방불케 하는 공간으로 되살렸다. 안으로 들어서면 구한말 목재 피아노를 비롯해 세월이 묻어나는 생활소품이 가득하다. 특색 있는 음료 메뉴가 많은데 자몽보숭이에이드와 칩식혜를 추천한다.

글 정평화 사진 이용기

올여름에 해외여행 갈 수 있을까? (feat. 환율)

A씨는 요즘 틈만 나면 네이버에서 환율을 검색해봅니다. 4월만 해도 1,500원대 후반을 오가던 원·달러 환율이 5월 들어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A씨는 올여름에 해외로 휴가를 가도 될까요? 환율의 행방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A씨는 연초에 해외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나면서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경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거든요. 항공권은 거의 두 배로 올랐고, 숙박과 식사에 드는 비용도 50% 이상 늘었습니다. 환율이 다소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국내 숙박비와 음식비도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범인은 환율입니다. 환율은 내 월급 빼고 모든 물가를 다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환율은 왜 생겨난 걸까요?

각 나라의 자신들의 중앙은행이 발행한 돈을 씁니다. 한국은 행이 발행한 돈은 한국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돈을 쓰기 위해서는 그 나라 중앙은행이 발행한 돈으로 바꿔야 합니다. 문제는 나라마다 물가 수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돈의 가치란 상품, 서비스, 자본 등에 대한 구매력을 의미하는데요. 물가 수준이 다르면 돈의 가치도 다릅니다. 때문에 다른 나라 돈으로 바꿀 때 교환 비율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환율(Exchange Rate)입니다.

원화 강세, 원화 약세는 무슨 뜻인가요?

환율은 각국의 돈을 바꾸는 외환시장에서 결정됩니다. 원화를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원화가 귀해집니다. 즉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죠. 이를 '원화 강세'라고 합니다. 반대로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달러가 강해집니다. 이를 '달러 강세'라고 합니다. 원화와 달러 간 교환에서 원화 강세는 곧 달러 약세를, 반대로 달러 강세는 원화 약세를 의미합니다.

원화 강세라더니...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다고요?

환율을 설명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통상 '강하다'고 하면 '오른다'고 생각하기 쉽죠. 1달러에 1,000원인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원화를 찾는 사람이 많아서 원화가 귀해진다(원화 강세) 500원만 주고도 1달러를 구할 수 있겠죠?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000원에서 500원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표기됩니다. 반대로 달러가 귀해지면 달러 가치가 올라갑니다(달러 강세). 1,000원을 주면 1달러를 구할 수 있었는데, 이젠 2,000원을 줘야 1달러를 구할 수 있습니다. 환율은 달러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표기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달러 대비 원화로 환율을 표시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다만 모든 나라가 달러 기준으로 자국의 환율을 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은 1파운드=0.97달러 형태로 표기합니다. 원조 기축 통화는 파운드였습니다. 그 자존심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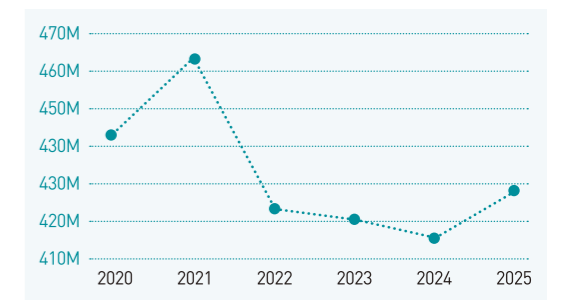
환율, 그냥 고정시키면 안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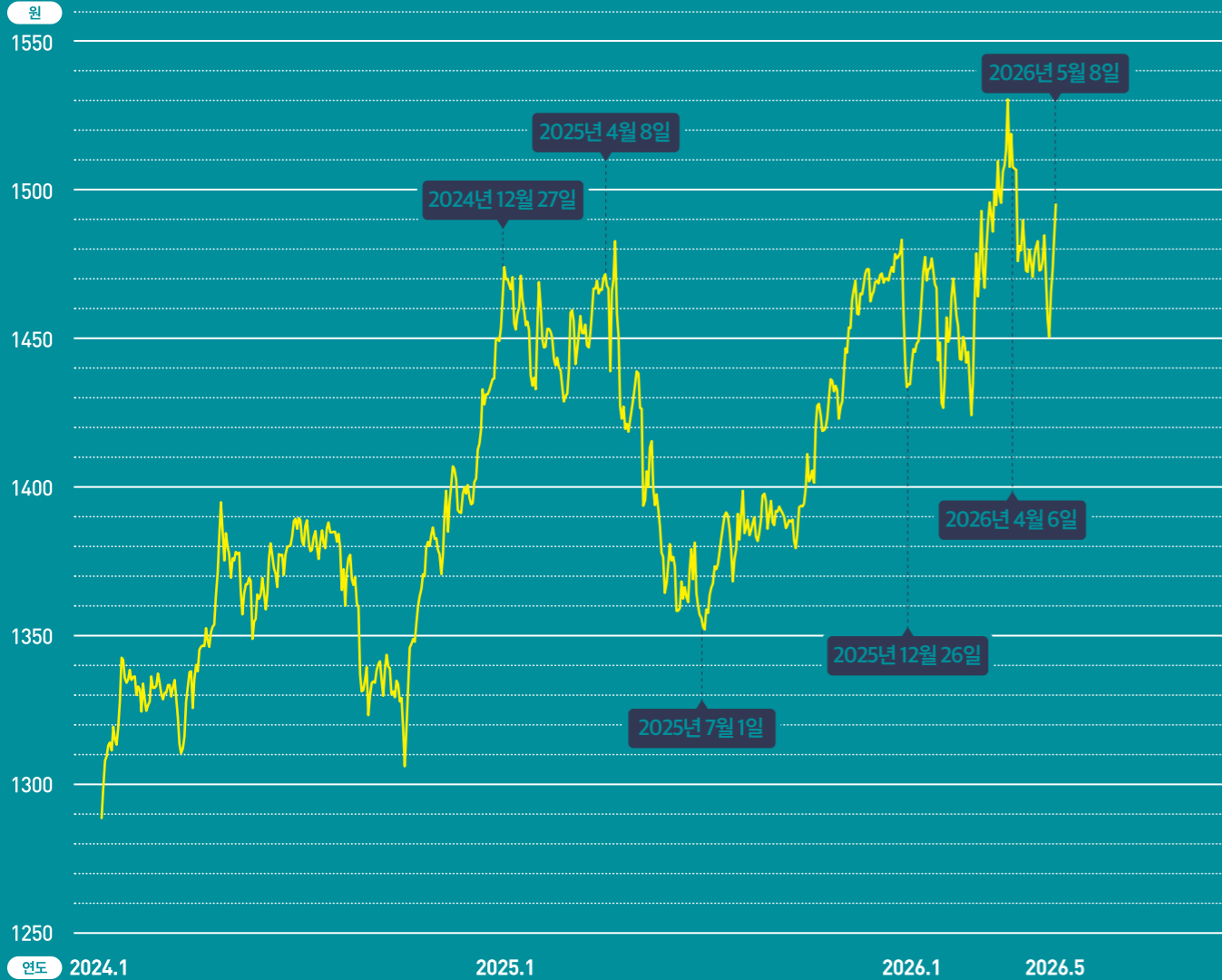
경제는 항상 변화.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GDP, 수출, 통화량 등이 계속 바뀝니다. 통화 가치가 계속 바뀐다는 뜻인데, 그런 만큼 환율도 계속 변동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1달러=1,000원으로 '고정'됐고, 한국 경제가 나빠졌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투자나 소비할 곳이 마땅하지 않으니 원화를 찾는 사람이 줄겠죠. 반면 원화를 달러로 바꾸려는 투자자는 많아질 겁니다. 원화 수요는 감소하는데 달러 수요는 증가합니다. 즉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올라갑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환율을 고정한다면? 달러를 가진 사람들은 외환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암시장이 활성화되고 외환시장은 붕괴될 겁니다.

과거에는 고정환율제였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 위기 전까지는 사실상 고정환율제에 가까웠습니다. 환율이 변동하기는 해도 일정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도록 제한을 뒀거든요. 환율이 고정되면 예측 가능성이 커지니 수출하는 사람들은 편합니다. 산업화 초기 국가들은 주로 고정환율제를 택하죠. 문제는 경기 상황이 변동했을 때인데요. 환율을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때 그때 개입해야 합니다. 즉 시중에 달러 수요가 많아져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면 정부가 달러를 외환시장에 공급해줘야 합니다. 반대로 시중에 달러 수요가 줄어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면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야 합니다. 외환 위기는 원화 약세(환율 상승)가 계속되자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외환시장에 공급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정부가 갖고 있는 달러가 얼마 남지 않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가 대외에 보증한 각종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국가 부도'죠. 1997년 12월 한국 정부는 IMF의 권고에 따라 환율 변동 제한 폭이 없는 변동환율제를 도입합니다.

대한민국 외환 보유액 추이 (단위: 1,000달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환율을 떨어뜨리고 있다던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2026년 기록적인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1,000조 원가량의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만큼의 달러가 국내에 유입된다는 말이 됩니다. 외환 시장에서 달러 공급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죠. 이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약세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합니다. 이렇게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일정 부분 달러를 사들이는데요. 이게 바로 외환 보유액이 됩니다. 즉 무역수지 흑자는 통상 외환 보유액 흑자로 이어집니다. 외환 보유액은 환율이 급등할 때(원화 약세, 달러 강세)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달러를 투입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외환 보유액을 '환율 방어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죠.

환율이 오르면 나쁜가요?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원화 약세 상황입니다.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적다는 뜻입니다. 국내 경기가 나쁠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가져와 원화로 바꿔야 하는데요. 이때 외환시장에 달러가 공급됩니다. 그런데 경기가 나쁘면 외국인들이 투자를 꺼리게 되고, 그만큼 달러 공급이 줄어듭니다. 또 경기가 나쁘면 주식 시장도 나쁠 텐데요, 외국인들이 국장(국내 주식시장) 투자를 피하면서 달러 공급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환율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질 때 상승합니다. 금융 위기나 전쟁 등의 상황에서는 해외 투자자들이 신흥국 투자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진국에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했던 돈을 회수해 나가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신흥국의 환율이 뛰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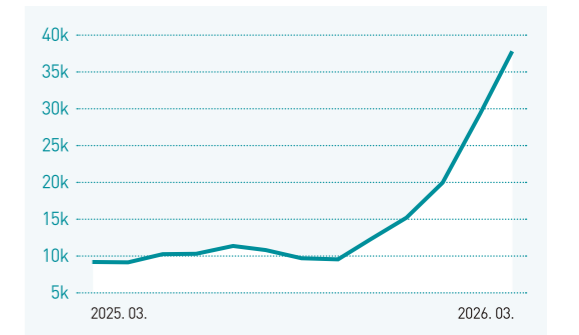
환율이 오르면 물가도 오르나요?

수입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죠. 1달러=1,000원이면 1달러 물건을 1,000원 주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달러=2,000원이 되면 2,000원을 줘야 살 수 있죠. 우리나라는 에너지, 식량, 원자재 등 대부분을 수입하기 때문에 물가가 환율에 민감합니다. 또 해외여행도 부담스러워집니다. 100달러짜리 호텔에서 예전에는 10만 원 주고 잘 수 있었지만 이제는 20만 원을 주고 자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유가가 치솟는 가운데 환율까지 상승하니 유류 할증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요. 미주로 가려면 과거보다 100만 원 이상 더 줘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환율이 떨어지면 좋은 건가요?

환율이 하락(원화 강세)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한국 경제가 강해진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가 맞습니다. 수입 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죠. 또 해외여행도 값싸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수출이 어려워집니다. 원화 강세 때는 수출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즉 1달러=1,000원일 때 1,000원짜리 물건을 해외에서 1달러에 받고 팔면 됩니다. 그런데 1달러=500원이 된다면 2달러를 받아야 수지타산이 맞습니다. 수출 가격이 올라가면 경쟁사들과 경쟁하기 힘들어집니다. 수입 물가가 떨어지면 더 많이 수입하게 됩니다. 때문에 수출은 줄고 수입이 늘어나 무역 적자가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무역 적자가 누적되면 국가 경제가 위태로워지죠. 한국은 수출 중심 국가라서 환율 상승(원화 약세)을 오히려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상수지 추이 2025. 03.~2026. 03. (단위: 100만 달러)



현찰 살 때와 송금할 때 환율이 달라 혼란스러워요

은행에 환전을 하러 가면 ▲매매 기준율, ▲현찰 살 때/팔 때, ▲송금 보낼 때/받을 때에 따라 각각 다른 환율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려는 사람이라면 '현찰 살 때'만 보면 됩니다. 혹은 '현찰 매도율'이라고도 표기합니다. 은행은 고객에게 달러를 팔 때 자신들이 구해온 환율(매매 기준율)에서 마진(환전 수수료)을 붙입니다. '현찰 살 때'는 고객이 달러를 은행으로부터 직접 살 때 적용하는 환율입니다. 만약 유학생 송금이라면 '송금 보낼 때'의 환율이 적용됩니다. 혹은 '전신환 매도율'이라고도 합니다. 환전 수수료는 현찰 살 때가 송금 보낼 때보다 큼니다. 대면 거래라 수수료를 높게 받는 것이죠.

현금으로 환전 vs. 신용카드 사용,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현금으로 환전할 때는 큰 폭의 환전 수수료가 나갑니다. 사용하지 못한 동전이 생기기도 하죠. 신용카드 결제는 환전 수수료가 적지만 결제 수수료와 카드사 브랜드 수수료가 붙습니다. 다만 카드사에 따라 포인트 적립, 결제 할인 등이 적용됩니다. 이런 점들을 모두 감안하면 현금 환전이나 카드 결제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갈수록 환율이 오르는 환율 상승기에는 미리 해둔 환전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하락한다면 하루라도 늦게 결제하는 카드 결제가 유리하겠죠.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 에디터. 27년 동안 기자로 일하면서 『경제를 모르는 그대에게』, 『OTT로 쉽게 배우는 경제 수업』을 비롯해, 여전히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위한 책을 써왔다.

진짜 인맥은 ‘양’이 아니라 ‘두께’다

은퇴 이후 스마트폰의 연락처 목록 중 몇이나 내 곁에 남을까? 인생 2막을 지탱해줄 힘은 인맥의 양이 아니라 ‘진성 조력자 그룹’의 두께에 있다.

누구에게나 보물 같은 인맥이 있다. 스마트폰의 연락처 목록을 열어보자. 정말 많은 이들의 연락처가 있을 것이다. 명함첩에는 스마트폰에 없는 인맥이 있는 경우도 많다. 당장 긴밀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어 명함만 꽂아둔 것이다. 그 외에도 종교 모임이나 동호회 등에서 만나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교류하지만 연락처를 저장하지 않은 이들도 있다. 여기까지가 ‘1차 인맥’이다.

1차 인맥이 달린 문이라면 ‘2차 인맥’은 무한한 기회의 광장이다. 1차 인맥이 1,000명이고 각각이 1,000명의 인맥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단순 계산만으로도 2차 인맥은 100만 명이 된다. 1차 인맥의 네트워크가 더 넓은 이들이라면 2차 인맥의 규모는 훨씬 커진다. 1차 인맥과 직접 비즈니스를 하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원하는 분야의 적임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인맥 확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SNS, 블로그, 밴드 등에는 앞에서 추렸던 1차 인맥 외에 더 넓은 접점이 존재한다. 온라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시물을 올리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를 자주 접했을 것이다. 이 방법까지 활용하면 인맥의 외연은 훨씬 방대해진다. 이것이 ‘3차 인맥’이며, 그 수는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



관점 인맥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기

이제 이들 중에서 신뢰할 수 있고 도움을 주고받을 사람을 선별해야 한다. 인맥의 총량과 실질적인 조력자의 수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주 연락하고, 서로 친하다고 느끼며, 자신에게 적절한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추려보자. 만일 당신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라면 적극적인 조언을 해줄 것이며, 나아가 기꺼이 도움이 될 만한 인물을 소개해줄 것이다. 이들이 바로 믿을 만한 대화 파트너인 ‘진성 조력자 그룹’이다.

평생 인맥이라 생각하니 갑자기 신중해지는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지나친 심사숙고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고민만 거듭하다 잠재적 기회를 놓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쁜 일정에도 솔직하고 열린 자세로 명확한 의견을 들려줄 대화 파트너를 일부러라도 자주 만나야 한다. 은퇴를 준비 중이라면 더욱 그렇다.

조력자가 반드시 가깝거나 자주 연락하는 사람일 필요는 없다. 수년간 만나지 못한 이들도 충분히 조력자 그룹이 될 수 있다. 오랫동안 관계가 끊겼던 ‘휴면 관계’의 인물이나, 우연히 스쳐지나며 큰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던 ‘느슨한 유대 관계’의 사람이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사회학자 마크 그래노벤테(Mark Granovetter)는 ‘약한 유대의 강점(The Strength of Weak Ties)’ 이론을 통해 이런 느슨한 유대가 오히려 새로운 정보를 얻거나 기회를 발견하는 데 훨씬 유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친한 지인보다 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또한 고정된 이미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모습으로 관계를 시작할 수 있으며, 감정적 부담 없이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실전 진성 조력자 그룹 구축하기

인맥은 분야별로 분류할 때 비로소 ‘인적 자산’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정리된 리스트는 고스란히 자신의 네트워크가 된다. 분류 항목은 자신이 활용하기 좋은 방식으로 설정하되 수시로 보완하면 된다. 그리고 이들과 안부 인사를 포함해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나아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해당 분야 인물에게 공유하고 솔직한 피드백을 요청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제, 실전에 돌입할 때다. 정부지원정책, 금융 및 대출, 아이디어 제안, 정서적 지지 등 해당 분야를 먼저 설정한 후 각 분야에 적합한 인물의 이름을 배치하면 된다. 분야가 겹치는 인물도 있을 것이다. 여러 분야에 걸쳐 있거나 다각도의 조언이 가능한 인물이라면 우선순위를 높게 설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상황에 맞게 수정하면서 보완하면 된다. 이렇게 구축한 ‘진성 조력자 그룹’은 강력한 생애 자산이 될 것이다.

분야	사람



최승영
 (주)마스터피스 얼라이언스 및 은퇴 준비 유튜브브 ‘유브랜드’의 대표로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코칭을 하고 있다. 2021년 코칭 기반 은퇴 준비서 『빨리 은퇴하라』에 이어 2025년 『경험과 경력에서 은퇴 자원 찾기』를 출간했다.

나는 왜 불안할까?

마음나래 프로그램과 함께하는 『마음 돌봄 워크북 시리즈』 3회의 주제는 ‘불안’입니다. 인간 생존의 필수 조건이기에 영원히 작별할 수 없는 감정, 우리는 불안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가장 흔하면서도 심각한 정신장애는 무엇일까요? ① 망상과 환청에 시달리는 조현병 ② 슬픔과 절망, 무기력에 괴로워하는 우울장애 ③ 끊임없이 술을 찾는 알코올 사용 장애 ④ 근심과 걱정에 전전긍긍하는 불안장애. 정답은 ④번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울장애가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불안장애의 아성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해요.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분리장애, 사회공포증 등이 모두 불안장애의 일종이에요. 이 가운데 ‘일반화된 불안장애’는 걱정의 대상이 삶의 모든 영역에 퍼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고소공포증은 높은 곳만 무섭고, 사회공포증은 타인의 시선만 걱정하는 반면 일반화된 불안장애를 겪는 이들은 건강, 가족, 일, 경제적 상황, 심지어 아주 사소한 일상까지 거의 모든 것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걱정합니다. 특정 대상이 없기에 피할 수도 없고,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언뜻 ‘걱정이 많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불안이 심하다면 반드시 치료받아야 해요.

Step 1

얼마나 자주 불안한가요?

일반화된 불안장애 척도-7(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GAD-7)

각 문항을 읽고 최근 2주 동안 다음의 문제들로 인해 얼마나 자주 방해 받았는지 체크해보세요. 측정 결과는 총 2단계로 나뉩니다.

문항	전혀 방해받지 않음	며칠	절반 이상 기간	거의 매일
①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조마조마하게 느낀다.	0	1	2	3
② 걱정하는 것을 멈추거나 조절할 수 없다.	0	1	2	3
③ 여러 가지에 대해 너무 많이 걱정한다.	0	1	2	3
④ 편안하게 쉬기가 어렵다.	0	1	2	3
⑤ 너무 안절부절해서 가만히 있기가 어렵다.	0	1	2	3
⑥ 쉽게 짜증이나 화가 난다.	0	1	2	3
⑦ 마치 끔찍한 일이 생길 것처럼 두렵게 느껴진다.	0	1	2	3

나의 불안 정도는?

총점	0~4점	5점 이상
	일반적인 수준의 불안	불안을 시사함

※ 1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장합니다.

Step 2

내 안의 불안,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알고 보면 불안은 유익한 감정이예요. 내 안의 불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말이죠!

참고 『마음으로부터 일곱 발자국』

나의 불안과 친해지세요

불안은 다가오는 상황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내일이 시험인데도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마 낙방하지 않을까요? 불안은 아주 원초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신체적 반응과 깊이 연결돼 있어요. 혈압을 높이고 맥박을 빠르게 해 뇌에 혈액을 보내줍니다. 덕분에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릴 수 있죠. 근육에도 혈액을 보내줘요. 특정 상황에 재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유익한 감정이라는 걸 알고 나니, 불안에 호감이 생기지 않나요?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을 미리 제거하세요

2~3일 정도 굶고 나면 고통스러운 허기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다행히 우리는 대부분 그런 고통을 경험하지 않아요. 규칙적으로, 또는 허기의 징조가 오면 식사를 하기 때문이죠. 불안을 조절하는 방법도 이와 비슷해요. 수험생이라면 불안이 찾아오기 전에 공부하고, 직장인이라면 업무를 미리미리 처리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허기감이 진화한 것처럼, 불안은 미리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진화한 감정이예요.

때로는 사회적 불안과 거리를 두세요

불안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감정이기도 해요. 불안만큼 전염력이 강한 감정도 없거든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미래, 각종 재난과 팬데믹의 공포, 갑자기 닥친 전쟁과 테러 소식...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질 때는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미디어, 심지어 매일 보던 뉴스와 잠시 작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싸우기보다 이용하기, 불안을 길들이세요

나의 불안 수준은 적당할까요? 정신의학적으로는 ‘자신이 경험하는 불안이 건강한 삶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로 이를 평가해요. 시험을 앞두고 책을 붙잡게 하는 수준의 불안, 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지 않게 만드는 불안이 이에 속하겠죠. 어느 정도의 불안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 스스로 모니터링하면서, 내적 불안의 원인과 그 반응의 수준을 스스로 조절해보세요. 불안과 싸우는 대신 이용하겠다는 의지, 불안 길들이기는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마음나래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마음나래 프로그램은 교정공무원을 위한 전문상담 프로그램으로, 일상의 어려움을 돕고 행복한 삶을 지원합니다. 상담이 필요하거나 심리진단을 받아보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마음나래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 보장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교정본부 주요 소식

2026 05+06



2026. 06. 05.

“교정의 오늘을 지켜낸 이름들, 그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습니다” 순직 교도관 167위 참배, 유가족과 함께 송고한 헌신 기려



법무부 교정본부는 지난 6월 5일 서울남부교정시설에 위치한 순직 교도관 충혼탑을 찾아 고인들의 넋을 추모했다. 이번 추모 행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교도관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는 순직 교도관들의 유가족들이 자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순직 교도관 충혼탑은 한국전쟁 당시 순직한 교도관 167위의 위훈을 기리고 명예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23년 6월 건립됐으며, 법무부 교정본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충혼탑 참배와 추모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함께한 개성소년형무소장 故 우학중 님의 손자 우준식 씨는 “할아버지를 비롯한 선배 교도관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어 가슴이 벅차다”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교도관들의 명예가 온전히 지켜지기를 소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훈연 교정본부장은 “순직 교도관들의 송고한 정신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응답하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를 전하며, 교정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고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6. 04. 20.

**강릉교도소,
교정시설 최초로 마약탐지견 합동 점검**

강릉교도소가 지난 4월 20일 교정시설 최초로 마약탐지견을 투입한 마약류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강릉교도소는 속초세관, 국가정보원 강원지부와 함께 수용자 보관품, 우편 및 도서, 자비 구매 의약품 등 주요 반입 물품에 대해 마약탐지견을 통한 탐지 후 이온스캐너로 2차 검사를 진행하는 시연을 펼쳤다. 이번 합동 점검은 지난 3월 법무부와 관세청 간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에 따른 조치다.



2026. 04. 22.

**제2차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전체 회의 개최**

법무부는 지난 4월 22일 서울지방교정청 심리치료센터가 소재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제2차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용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심리치료센터가 보유한 VR 프로그램을 체험 및 점검했다. 또 자문위원별 활동 분과를 인권·처우, 치료·재활, AI 첨단기술 등으로 세분화하여 향후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했다.



2026. 05. 04.

**교정본부 찾은 아시아교정포럼,
교정청 신설 관련 간담회 참석**

지난 5월 4일 아시아교정포럼 이사장 등이 교정본부를 예방했다. 이번 방문은 교정청 신설 관련 조직 구성 및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방문단은 간담회 자리에서 교정청의 역할에 대한 학계 건의사항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흥연 교정본부장과 이백철 아시아교정포럼 이사장이 참석했으며 교정·보안정책단장, 교정기획과장, 교정대외협력단장이 함께했다.



2026. 05. 11.

제44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법무부는 지난 5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4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열고 수용자 교정·교화 및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교정공무원 9명, 교정위원 8명 등 18명을 포상했다. 시상식에는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성수 서울신문사 사장, 김우성 KBS 한국방송공사 부사장 등 관계 인사와 교정공무원·교정위원 20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상은 서울남부교도소 권오영 교감이 수상했다.



2026. 05. 13.

**서울남부교도소 찾은 주한 캐나다 대사,
재범 예방 프로그램 등 참관**

지난 5월 13일 필립 라포톤 주한 캐나다 대사가 서울남부교도소를 방문했다. 라포톤 대사는 이날 재범 예방 프로그램과 수용자 작업 환경 등을 참관 후, 자국민(캐나다 국적) 수용자들과 면담 시간을 가졌다. 이어 이흥연 교정본부장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교정본부는 "이번 방문이 양국 간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교류 확대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6. 05. 13.

**이흥연 교정본부장,
서울남부교정시설 정책 현장 방문**

이흥연 교정본부장은 지난 5월 13일 서울남부교정시설(서울남부교도소·서울남부구치소)을 방문해 화재 등 재난 안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주재해 수용자 교정·교화에 헌신하는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간담회는 교정본부장과 일선 교정공무원이 직접 소통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여과 없이 전해지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국 교정기관 소식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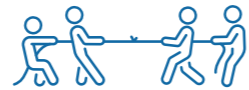
더 밝은 교정행정을 위한 우리들의 발걸음.

서울지방교정청

서울구치소

장애인 복지시설 '녹향원' 찾은 보라미봉사단

지난 5월 11일 서울구치소 보라미봉사단이 의왕시에 위치한 지적장애인 복지시설 '녹향원'을 찾아 환경미화, 시설 정비 등을 지원했다. 이번 활동은 수형자들이 땀 흘려 봉사하는 보람을 느끼고, 출소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춘천교도소

소속감과 동료애 다진 시간, 대체복무요원 체육대회

춘천교도소는 지난 5월 12일 대체복무요원 체육대회를 열었다. 모처럼 젊음을 한껏 발산한 대체복무요원들은 "승패를 떠나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소속감과 동료애가 한층 단단해졌다" 등의 후기를 전해왔다.

영월교도소

진로·직업 박람회 참가한 직원들, 교정공무원 역할 직접 홍보

영월교도소가 영월군과 영월교육지원청이 주최하는 진로·직업 박람회「2026 드림티켓」에 참가했다. 영월교도소는 부스를 마련해 교도관의 사회적 역할과 직무를 알리는 한편, 직원들이 직접 교정본부 마스코트 '보라미' 탈을 쓰고 친근한 교정공무원의 모습을 학생들에게 선보였다.



부산교도소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방문, 마약류 사범 시설 점검

지난 4월 23일 이재훈 기획예산처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이 부산교도소를 방문해 마약류 사범 치료·재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폈다. 현장 점검을 마친 이재훈 심의관은 일선 직원들을 만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구치소

'찾아가는 심신 케어 프로그램' 시행



대구구치소가 지난 4월 13일 직원들의 몸과 마음을 보듬는 시간을 가졌다. 몸 건강을 위한 건강상담과 피지컬 케어,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상담과 커피트릭 이벤트를 한데 묶은 '찾아가는 심신 케어 프로그램'을 시행한 것. 직원들은 "오랜만의 힐링 시간이었다"는 후기를 전해왔다.



김천소년교도소

인권친화형 디지털 수감 개발 위한 업무협약

김천소년교도소와 (주)테라윈이 지난 4월 29일 인권친화형 디지털 수감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향후 기술 협력을 이어가며 성능 시험, 관련 규정 검토 및 개정안 제안 등 일련의 과정을 함께할 계획이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경북지방 기능경기대회 참가, 우수한 성적으로 역량 입증

경북직업훈련교도소가「2026 경북지방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해 총 3명이 입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참가자들은 타일 직종에서 금상과 은상을, 건축 직종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적으로 역량을 입증하고 사회 복귀를 향한 희망을 보여줬다.



대전교도소

교정 의료에 헌신한 고(故) 안사영 선생 추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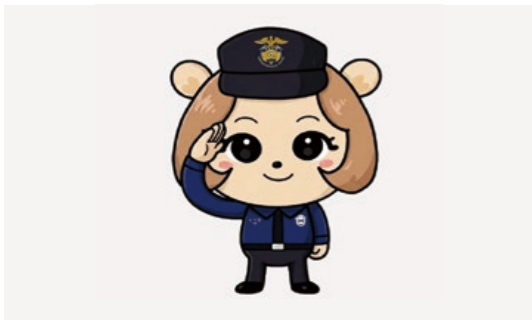
대전교도소가 4월 6일 교정 의료 발전에 헌신한 고(故) 안사영 선생을 기리며 추모 행사를 가지고,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대전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사영 선생은 항일운동에 참여했으며 해방 이후에는 대전교도소 의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용자 건강권 보호에 앞장섰다.



청주여자교도소

「MAKE 캐릭터」 공모전, 대표 캐릭터 '청아' 탄생

지난 4월 13일 청주여자교도소 캐릭터가 새롭게 탄생했다. 이번 「MAKE 캐릭터」 공모전에는 총 9개 캐릭터가 최종 심의에 올랐으며, 청주여자교도소는 기관 SNS 투표와 내부 평가를 합산해 당당한 여성 교도관의 모습을 그린 '청아'를 대표 캐릭터로 선정했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모범 수용자 포함 15명, 농번기 맞은 지역 농가 일손 도와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보라미봉사단이 농협중앙회 충남세종본부와 함께 농번기를 맞은 지역 농가를 찾아 일손을 도왔다. 이날 활동에는 모범 수용자 4명을 포함한 15명이 참여했으며, 농지 정리와 잡초 제거 등을 함께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공주교도소

지역사회 상생 발걸음! 기부 물품으로 교도소 환경 개선

공주교도소가 지난 4월 28일 (주)SP삼화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받았다. 이번 기부는 대전지방경찰청 공주지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주)SP삼화가 함께 추진 중인 지역사회 상생 활동의 일환이다. 페인트를 비롯한 기부 물품은 공주교도소 환경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주교도소

직원들이 앞장선 환경 정비로 쾌적한 민원 환경

전주교도소 직원들이 지난 5월 7일 교도소 내 환경 정비에 나섰다. 민원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청사 앞 등나무 주변을 비롯한 곳곳에서 잡초를 제거하고 주변을 정리하며 쾌적한 민원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탠 것. 활동 후에는 시원한 커피를 함께 마시며 직원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제주교도소

참여형 솟품 콘테스트 최고우수작, 조회 수 3만 건 기록

지난 4월 2주 동안 직원 참여형 홍보 솟품 콘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부부 교도관의 하루」가 최고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젊은 부부 교도관의 모습을 유쾌하게 담아낸 해당 솟품은 조회 수 3만 건을 기록할 정도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해남교도소

화원중학교 학생들이, 교정공무원 진로 체험

지난 5월 11일 화원중학교 학생들이 해남교도소에서 진로 체험에 나섰다. 학생들은 보호 장비를 직접 착용해보고 교도소 내부를 참관하면서 교도관이라는 낯선 직업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었다. 해남교도소는 "학생들이 교정공무원을 장래희망으로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란다"고 행사 취지를 전했다.



군산교도소

위로 건넨 5월, 「희망가득 노래문화 한마당」 개최

군산교도소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용자 노래자랑 및 공연 무대를 열었다. 교정협의회와 함께 기획한 이번 행사의 타이틀은 「희망가득 노래문화 한마당」으로, 수용자에게 치유와 위로를 전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 의지를 북돋우기 위해 마련됐다.



모범공무원 선정을 축하합니다!

그대들의 성실한 직무 수행과 묵묵한 헌신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인천구치소
장경준 교사

여성 수용동 증축 공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 간담회를 개최, 주민들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소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6년 모범공무원에 선정됐습니다.



부산구치소
오종원 교위

주차장에 회전교차로를 도입해 혼잡 문제를 개선했으며, 친절한 민원 응대로 국민신문고에 감사의 글이 게시되는 등 교정 행정의 신뢰를 드높였습니다.

대전교도소
성룡 교위



담당 직원에게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위임장 접수 및 등록을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거리에 거주하는 민원인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공직자의 투철한 책임감을 증명했습니다.

광주교도소
장준호 교위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적절한 비유와 쉬운 언어를 사용한 맞춤형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평상시에도 친절한 민원 응대로 친절카드 7회 수령을 기록하는 등 현장 행정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교정본부 SNS를 구독해주세요!



구독 인증 사진과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보낼 곳 법무부 교정기획과 correct2023@naver.com



유튜브



인스타그램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벅스코
2026
07.19-07.29
BUSAN BEXCO

BUSAN, REPUBLIC OF KOREA 19-29 JULY 2026 부산, 대한민국
BUSAN, RÉPUBLIQUE DE CORÉE 19-29 JUILLET 2026 2026 7.19-29

48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Busan, Republic of Korea • 2026

48E SESSION DU
COMITÉ DU PATRIMOINE MONDIAL
Busan, République de Corée • 2026

